

## 고대 중국 문자에서 본 중국인의 의사와 의료기술에 대한 탐구

### 서재선\*

#### — 목 차 —

1. 들어가며
2. 중국 고대 의학의 시초
  - 1) 醫자와 원시 고대 중국 의학
  - 2) 원시 고대 중국 의사
  - 3.) 원시 고대 치료방법—巫師의 치료
3.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사 전업의 대두
  - 1) 巫·醫 직능 분리
  - 2) 의학분과
4. 중국고대문자에서 본 중국고대 의료기술
  - 1) 祝由術            4) 按摩
  - 2) 砭石            5) 灸法
  - 3) 針法            6) 藥物
5. 나오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은상시대 갑골문과 춘추전국시대의 금문, 동한시대 《說文解字》에서 나타난 원시 고대 중국인의 의사와 의료에 대한 문자를 추려 그와 연관된 고대 문헌을 참고하여 당시 의료를 시행하는 주체자, 의료방법 등을 문자를 통해 탐구해보았다. 갑골문과 설문해자 속에서 나타난 원시 고대 중국의 의료주체자는 ‘巫師’이다. 당시 ‘巫師’는 정치, 문화, 주술, 기우제를 주관하는 자로 상당한 영력과 지위, 문화적 소양을 겸비한 자였다. 문자에서 나타난 고대 의료기술은 祝由術, 砭石, 針法, 按摩, 灸法, 藥

\* 강서대학교 G2빅데이터경영학과 중국어트랙 부교수

物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다. 축유술은 갑골문 ‘祝’자와 ‘兌’자, 《說文解字》에서 ‘禦’, ‘呪’자. 砭石치료법에는 ‘砭’자, 針法은 ‘殷’자, ‘痲’자, ‘鍼’자, ‘瘡’자. 按摩치료법으로 ‘尉’자, 灸法은 ‘灸’자, ‘灼’자, ‘艾’자. 藥物치료법은 ‘毒’자, ‘藥’자, ‘樂’자, ‘癩’자에서 고대 중국인들의 각종 치료법과 약물 치료에 대한 흔적을 문자와 문헌을 통해 원시 고대 중국인의 치료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 중국고대문자, 갑골문, 설문해자, 의료사, 문화사

## 1. 들어가며

중국 문자는 표의문자로 문자의 자형에서 당시의 생활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학자 許進雄은 《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라는 책에서 “문자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sup> 라고 했고, 許沖 <上《說文解字》表>에서 許慎의 《說文解字》는 字書이나 그 내용은 당시 고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慎博文通人, 考之於遠, 作《說文解字》, 六藝群書之詰, 而天地鬼神, 山川  
艸木, 鳥獸<sup>虫</sup>, 裸物奇怪, 王制禮儀, 世間人事莫不畢載.<sup>2)</sup>

근대 문자학자 胡樸安은 《中國文字學史》에서 《說文解字》가 문자학사에서의 가치를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그중 제8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許進雄 (1995), 《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臺北:商務印書館, p.前言1.

2) 段玉裁注《說文解字》卷十五下 十, 十一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p.793-794

「허신은 경학과 문자에 통달한 사람으로, 賈逵에게서 古學을 수학하고, 《說文解字》를 지어 육서 군경의 주를 달고 뜻을 해석하여, 천지, 귀신, 산천, 초목, 새와 짐승, 곤충, 잡물, 기괴, 왕제, 예의,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能爲古社會之探討也,《說文解字》一書,雖非原始時代文字之形義,但必繼承原始時代文字之形義而來,根據《說文解字》,上溯甲骨文及金文,可爲古社會探討之材料極多.<sup>3)</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說文解字》는 원시시대 문자의 자형과 자의를 계승해서 생겨난 글자이다. 즉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과 자의를 내포하고 있어 중국 고대사회를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이다. 그래서 필자는《說文解字》를 중심으로 갑골문과 금문을 활용하여 “고대 중국 의사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발전 상황과 의료기술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문자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고증하기 위해 고대 문헌을 참고하여 이 논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2. 중국 고대 의학의 시초

### 1) 醫자와 원시 고대 중국 의학

#### (1) 医

《說文解字》「医,臧弓弩矢器也,從匚矢,矢亦聲。」段注:「此器可隱藏兵器也。」<sup>4)</sup> 医자, 갑골문  (《合集》37468)<sup>5)</sup>

3) 胡樸安(1988)《中國文字學史》上 臺北:臺灣商務印書館發行 pp.42-43.

「고대사회를 연구 토론할 수 있다.《說文解字》이 책은 비록 원시시대 문자의 자형과 자의는 아니지만, 원시시대 문자의 자형과 자의를 계승한 것이다.《說文解字》를 보자면, 위로는 갑골문과 금문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어, 고대사회를 탐구할 수 있는 자료가 지극히 많다.」

4)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二編下 四十八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641.《說文解字》「医자는 궁 노와 화살을 담아 두는 기물이다. 匚과 矢를 따르고, 矢자는 소리 역할도 한다.」

5) 郭沫若(1983)《甲骨文合集》第十二冊, 第五期 37468 北京:中華書局 p.4652.

허신과 단옥재의 주에 의하면 ‘醫’자는 화살을 담아두는 기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醫’자는 ‘고대 의사들의 의술에 사용하는 기물과 약을 담아 놓은 상자’를 연상케 한다. ‘匚’ 편방은 상자를 나타내고, ‘矢’ 자는 예리한 외과 수술 공구로, 낭종을 터뜨리기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혈자리에 침구로 사용되는 기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 학자 白川靜은 “醫자 중 匚편방은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리키고, 마치 동굴 같은 곳에서, 주술의 화살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sup>6)</sup>라고 하였다. 그래서 “젊은 여자무당이 기도하는 것을 ‘匱’이라고 했는데, 숨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술이 갖든 화살로 기도할 때 주술을 외면서 주술이 갖든 화살을 향해 질책을 하면 그 기도의 효과가 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毆’자”<sup>7)</sup>라고 했다. 《郡經評議·孟子一》에서 “고대 원시 중국에서는 무당과 의사는 같은 직책이었다. 즉 무당이 의술도 함께 행했다.”<sup>8)</sup>라는 기록이 있다. 내재적인 병은 외상에 비해 그 환부가 드러나지 않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무당을 찾아가 주술을 청하여 원인 모를 병을 낫기를 간구하며 주술의 힘에 의지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당시 고대 중국인들의 다반사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白川靜의 해석이 한편 일리가 있다. 중국학자 周清泉도 “醫자를 주술이 갖든 화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白川靜의 해석과는 달리 “상대 後羿射日<sup>9)</sup>의 전설과 주대 服猛射熊<sup>10)</sup>의 전설을 인용하여 그 당시

6) 白川靜著, 范月嬌, 加地伸行合譯(1983)《中國文化史》臺北:文津出版社 p.133

7) 白川靜著, 范月嬌, 加地伸行合譯(1983)《中國文化史》臺北:文津出版社 p.133

8) (清)俞越(2002)〈郡經評議·孟子一〉「是巫醫古得通稱, 蓋醫之先亦巫也, 巫醫對文則別, 散文則通。」《清代學術筆記叢刊58》, 北京市:學苑出版社, 光緒二十五年《春在堂全書》影印本, 卷三十二, p.17

9) 《山海經·海外南經》“羿與鑿齒戰于壽華之野, 羿射殺之。在昆侖虛東, 羿持弓矢, 鑿齒持盾。一曰戈。”

10) 《史記·趙世家》居二日半, 簡子寤。語大夫曰:「我之帝所甚樂, 與百神游于鈞天, 廣樂九奏万舞, 不類三代之樂, 其聲動人心。有一熊欲來援我, 帝命我射之, 中熊, 熊死。又有一羆來, 我又射之, 中羆, 羆死。帝甚喜, 賜我二笥, 皆有副。吾見兒在帝側, 帝屬我一翟犬。」曰:「及而子之壯也, 以賜之。」帝告我:「晉國且世衰, 七世而亡, 嬴姓將大敗周人于范魁之西, 而亦不能存也。今余思虞舜之勳, 適余將以其胄女孟姚配而七世之孫。」董安于受言

사람들은 화살을 초능력의 기능을 가진 도구로 여겼다. ‘医’자의 ‘匚’편방은 어둡고, 광명정대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医’자는 무당이 주술을 하며 화살 대신 침으로 밀짚 인형에게 꽂아 환자에게 붙은 병마를 쫓아내는 주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글자<sup>11)</sup>라고 풀이하였다.

위의 의견들을 정리하면, ‘医’자는 “무당이 주술을 하며 의술을 병행했던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医’자는 지금의 ‘醫’자의 본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 (2) 醫

《說文解字》「醫, 治病工也. 從毘, 從酉. 毘, 惡姿也. 醫之性然, 得酒而使. 故從酉. 王育說, 一曰, 毘, 病聲. 酒所以治病也. 《周禮》有醫酒, 古者巫彭初作醫.」<sup>12)</sup>

‘醫’자는 ‘医’자 이후에 나타난 형성자이다. ‘醫’자를 분석하면 ‘毘’와 ‘酉’를 따른다. ‘毘’자는 《說文·殳部》에서 “擊中聲也”라고 해석하였고, 段玉裁 주가 인용한 王育의 일설에는 “毘, 病聲也, 此與擊中聲義近”이라고 풀이하였다<sup>13)</sup>. 즉 “때리는 소리와 사람이 앓는 소리가 비슷”하여 당시 허신이 이렇게 풀이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酉’자는 《說文·酉部》에서 “八月黍成可爲酎酒(8월에 기장으로 담근 진국의 술)<sup>14)</sup>라고 풀이했다. 술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而書藏之。以扁鵲言告簡子，簡子賜扁鵲田四萬畝。”

11) 周清泉(2003), 《文字考古》成都: 四川人民出版社, pp.206-207.

12)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四編下 四十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757.

《說文解字》「醫,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毘와 酉자를 따른다. 毘자는 흉측한 모습이다. 醫의 성질이 그러하듯이, 치료할 때 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酉를 따른다. 王育이 말하기를 일설에 毘자는 병이나서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이고, 술은 치료를 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周禮》에서 醫酒라는 말이 있는데, 고대 전설 속의 신의 巫彭은 처음 치료를 할 때 술을 사용하였다.」

13)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三編下 二十六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120. 「毘, 병이나서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이다. 이 소리는 쳐서 나는 소리와 뜻이 비슷하다.」

하고 마취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의술을 행할 때 환자에게 마시게 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혹은 고대 원시 무당이 접신을 할 때 정신을 흥분시켜 혼이 빠져나가 귀신과 소통하게 하는 축매 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선진시대에서는 ‘醫’자와 ‘醫’자가 통용하였다. ‘醫’자에서 의술을 행하는 자가 ‘巫師’였음을 보여주는 글자이다.

‘醫’와 ‘醫’자의 함의를 보면, 원시 고대 중국에서 의술을 행하는 자는 ‘무당’ 혹은 ‘박수’였고, 의술을 행할 때 사용되는 것은 ‘화살’과 같이 뾰족한 기구와 마취의 작용을 하는 ‘술’이 사용되었음을 문자 속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 2) 고대 중국 의사

### (1) 巫師의 탄생

고대 중국인은 대자연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신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났고 그 마음의 표현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다. 그 예로 자연숭배, 생식기의 숭배, 토tem의 숭배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袁珂는 《中國神話通論》에서 이러한 현상을 기술하였다.<sup>14)</sup> 이후 자연숭배 사상이 진화되어 대자연 모두를 인격화시켜 ‘萬物有靈論’이라는 원시종교 관념을 형성했고, 또 ‘귀신숭배’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신의 영역’이라고 간주하고 귀신을 숭배하였다. 동한시대 王充은 《論衡·解除編》에서 “疫鬼를 몰아내야 한다” 는 기록이 있다.

解逐之法，緣故逐疫之禮也。昔顛頊氏有子三人，生而皆亡，一居江水爲虐鬼，一居若水爲魍魎，一居歐陽之間主疫病人。故歲終事畢，驅逐疫鬼。

14)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四編下 三十三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754.

15) 袁珂(1993)《中國神話通論》巴蜀書社出版發行，四川省新華書店經銷，pp.7-9.

因以送陳、迎新、內吉也。世相仿效，故有解除。夫逐疫之法，亦禮之失也。行堯、舜之德，天下太平，百災消滅，雖不逐疫，疫鬼不往。行桀、紂之行，海內擾亂，百禍并起，雖日逐疫，疫鬼猶來。<sup>16)</sup>

상대 갑골문에도 “질병이 조상들로 인해서 온다”는 기록이 있다.

貞王疾佳大示. 《合集》13697正乙. (貞卜: 왕의 병이 조상에서 왔나요?)  
 疾不佳大示. 《合集》13697正甲<sup>17)</sup> (병이 조상에서 오지 않았어요.)  
 貞佳多妣肇王疾. 《合集》2521正甲<sup>18)</sup>(貞卜: 왕의 작고하신 할머니가 왕에게 질병을 내렸나요?)  
 疾身佳有害, 不惟多父, 惟多父. 《合集》13666正<sup>19)</sup>(질병이 몸에 해를 입힌 것은, 작고하신 아버지가 내리신 것인지, 아닌지?)  
 貞佳多母害. 《英藏》113 <sup>20)</sup>(貞卜:작고하신 어머니가 해를 입혔나요?)

위의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상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와 조상신”을 인식하고 있었고, 여러 신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신을 ‘上帝’라고 불렀다. 갑골문에도 그 흔적이 “帝降疾(상제가 사람에게 질병을 내렸다)”<sup>21)</sup>이라는

16) (東漢)王充 <論衡·解除編>《叢書集成初編》(1985) 北京市:中華書局 卷二十五 p.269.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고대 역귀를 추방하는 의식을 답습하였다. 옛날 顓頊氏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어 귀신이 되었다. 한 사람은 長江에 살면서 학귀가 되고, 한 사람은 若水에 살면서 망랑귀가 되고, 한 사람은 오두막 구석에 살면서 전문적으로 사람에게 병을 옮긴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오고 한 해의 일이 끝나면, 사람들은 역귀를 쫓아내고, 송구, 영신, 납길을 한다. 세상 사람들 간에 서로 이러한 풍습을 모방하니, 비로소 해소 방법이 생겨났다. 무릇 역귀를 몰아내는 방법이 등장한 것은 의례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요순의 덕의 정치를 행하면 천하가 태평하고 각종 재앙이 사라질 것이며, 설사 疫鬼를 몰아내지 않더라도 疫鬼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桀왕과 紂왕의 악행을 따라 하게 되면,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각종 재난이 한꺼번에 몰려와 매일 역귀를 쫓아내도, 역귀는 여전히 나타나 사람을 해칠 것이다.」

17) 郭沫若(1979)《甲骨文集》第五冊, 第一期 13695正乙, 13698 北京:中華書局 p.1937, p.1940.

18) 郭沫若(1978)《甲骨文集》第二冊, 第一期 2521正甲 北京:中華書局 p.489.

19) 郭沫若(1979)《甲骨文集》第五冊, 第一期 13666正北京:中華書局 p.1931.

20) 李學勤, 齊文心, 艾蘭(1985)《英國所藏甲骨集》上編 (Oracle Bone Collection in Great Britain)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倫敦大學亞非學院編輯中華書局 p.32.

글귀와 “貞不佳下上肇王疾(貞卜:천신과 지기가 왕께 병을 내렸나요)”<sup>22)</sup>이라는 글귀가 있다. ‘上’은 ‘天神’을 의미하고, ‘下’는 ‘인간 세상의 地祇’를 의미한다.

위 두 문장의 “降疾”과 “肇疾”은 ‘질병을 내린다’, ‘질병이 비롯되었다’라는 의미로 같은 뜻이다. 즉 ‘상대 사람들은 질병이 든 것은 상제, 지기, 혹은 조상신이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로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商書》, 《周禮》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商書·太甲上》「先王顧諟天之明命，以承上下神祇」<sup>23)</sup>

《周禮·春官·小宗伯》「大裁，及執事禱祠于上下神示」<sup>24)</sup>

위의 두 문헌을 보면, ‘상제’는 자연계와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최고의 주재자이다. 그러나 상제는 볼 수 없고 범인이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상제와 인간의 중간에서 중재하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大裁’이다. 무당은 신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이다. 당시 무당의 권력은 인간 세상에서 통치자 계급이었다. 그래서 白川靜은 “巫爲王”이라고 주장하였다.<sup>25)</sup> 이러한 내용이 《呂氏春秋·季秋紀·順民》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탕왕이 하나라를 제패하고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5년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21) 郭沫若(1977)《甲骨文合集》第六冊，第一期 18756 北京:中華書局 p.2483.

22) 郭沫若(1979)《甲骨文合集》第五冊，第一期 14222 正甲“貞不佳下上肇王疾”；14222 正丙“貞佳帝肇王疾。”北京:中華書局 p.2040.

23) (西漢)孔安國傳, (唐)孔穎達疏 <尚書正義>《十三經注疏》1 重刻宋板注疏:藝文印書館印行 p.116. 《商書·太甲上》「先王께서 이 하늘의 밝은 命을 돌아보시어, 위로는 천신과 아래로는 땅의 지기신을 받드시고」

24) (東漢)鄭玄注, (唐)賈公彥疏 <周禮注疏>《十三經注疏》3 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293. 《周禮·春官·小宗伯》「大裁는 나라에 천재지변을 만났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위로는 천신에게 아래로는 땅신에게 기원과 제사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25) 白川靜著, 范月嬌, 加地伸行合譯(1983)《中國文化史》「古代的帝王爲巫祝王」臺北:文津出版社 pp.116-126.

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 자기를 형벌하여 신체 일부를 희생으로 드림으로 상제와 귀신이 감응하여 곧바로 비가 내렸다는 전설이 있다.”<sup>26)</sup>이 전설은 탕왕이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체를 희생으로 드림으로 천신에게 비를 간구하였고, 비가 내림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사상을 장악하였다.

## (2) 巫師의 기능

원시 고대 중국에서 ‘巫師’는 춤으로 신을 강신하게 하였다. ‘舞’자 갑골문은 𠄎(《合集》14210正)<sup>27)</sup>, 이 글자는 “양손에 소꼬리를 끌고 있는 모습으로 巫師가 춤을 추며 신과 교감을 하는 모습”이다. 周清泉은 《文字考古》에서 “‘舞’자 갑골문 ‘𠄎’자는 ‘大’자를 사용하여 사람의 모습을 팽창되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당시 무당이 되는 사람은 체격이 크고 신체가 건장하여 적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하여 도망가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sup>28)</sup>라고 하였다. 중국 학자 張銘은 “은상시대 ‘大’자를 사용한 자는 당시 권세가 높고 혁혁한 신분임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巫’이다”<sup>29)</sup>라고 하였다. 그래서 周清泉은 씨족의 ‘우두머리’ 혹은 ‘수령’이라고 했는데<sup>30)</sup>, 이는 白川靜이 제기한 “巫爲王”이

26) 「昔者湯克夏而正天下，天大旱，五年不收，湯乃以身禱于桑林，曰，“余一人有罪，無及萬夫，萬夫有罪，在余一人。無以一人之不敏，使上帝鬼神傷民之命。”於是翦其髮，櫪其手，以身爲犧牲，用祈福于上帝，民乃甚說，雨乃大至。則湯達乎鬼神之神化，人事之傳也。」

陳奇猷校釋(1989)《呂氏春秋校釋》(上) 臺北: 華正書局 p.479.

27) 郭沫若(1979)《甲骨文合集》第五冊，第一期 北京:中華書局 p.2037.

28) 周清泉(2003)《文字考古》成都:四川人民出版社, p304. 「這是一種以身體作勢的體勢語言，即以兩手的分張作炫耀式的體形膨脹來表象大。因爲人是『裸猿』，沒有毛羽之類可以豎立，所以用手足的分張來加大體積，就象現代的拳擊手上場及健美選手的表連一樣，兩手握拳分張，頭昂挺胸，兩足叉立，在炫耀權力，顯示強健……所以大字是以顯示威力的體形膨脹來表象這是人中之大，即氏族的頭兒，首領。」

29) 張銘(2009:1)〈從巫、舞，零解說遠古祭祀活動中的舞蹈〉《新疆藝術學院報》p.1.

30) 周清泉(2003)《文字考古》成都:四川人民出版社, p304.

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sup>31)</sup> 그래서 ‘巫’는 당시 사람 중에 신분과 명망이 높은 자로서 그 지력이 범인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씨족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國語·楚語》卷十八에서 巫師의 능력에 관한 기록이 있다.

옛날에는 사람과 신이 섞이지 않았다. 사람의 정신은 맑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공경하였고, 그들의 재능과 지혜는 하늘과 땅을 각기 알맞게 만들었고, 그들의 성서로운 빛은 멀리까지 비출 수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었고, 그들의 청각은 영민하여 사방으로 통할 수 있었다. 신명이 이런 사람에게 내려오니 남자는 ‘覡’이라고 하고, 여자는 ‘巫’라고 불렀다.<sup>32)</sup>

고대 ‘巫師’는 그 신분이 아주 높고, 일정한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자이다. 그래서 智, 聖, 明, 聰이 수준 이상으로 영력, 가무, 점사, 해몽 기우,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 史官 및 의사의 기능까지 겸비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학의 시발점이 바로 巫術의 비호 아래 싹이 트기 시작했다.”<sup>33)</sup> 그래서 “巫師는 종교의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sup>34)</sup> 《說文》‘巫’자에서 “巫師는 남을 위해 빌어주는 사람으로 여자 무당이 양 소매로 춤을 추어 강신하게 하는 모습”<sup>35)</sup>이라고 묘사했다. 《公羊傳·隱

31) 白川靜著, 范月嬌, 加地伸行合譯(1983)《中國文化史》「古代的帝王爲巫祝王」 臺北:文津出版社 pp.116-126.

32) (西周)左丘明著, (三國)韋昭注《國語》卷十八 宋代 明道本, 上海:上海古籍出版社 p.559  
「古者民神不雜. 民之精爽不攜貳者, 而又能齊肅衷正, 其智能上下比義, 其聖能光遠宣朗, 其明能光照之, 其聰能聽徹之, 如是, 則神明降之, 在男曰覡, 在女曰巫。」

33) 弗雷澤(J.G.Frazer)著(1991), 汪培基譯, 陳敏慧校閱《金枝-巫術與宗教之研究》臺北: 桂冠圖書股份有限公司, p.21.

34) 趙容俊(2003)《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臺北:文津出版有限公司 pp.136-142.

「古代巫醫不分, 由於人類將疾病致因視爲鬼魂作用, 故以巫者充當人鬼間的仲介人角色. 寄希望於巫術行醫, 安撫死神而達於消除疾病的目的. 舉行治兵巫術儀式時, 巫者却往往使出自己全部解數, 進行充分的表演, 完成此醫療巫術. 正因基於此觀念, 醫療與巫術密切結合, 藥物心理與巫術心理取得自然的結合, 求藥及巫術者皆統一於醫療活動之中。」

35) 《說文解字》「巫, 巫祝也. 女能事無形以舞降神者也. 象人兩髮舞形, 與工同意. 古者巫咸初作巫. 凡巫之屬皆從巫」 (東漢)許慎《說文解字》卷五編上 二十六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公》에서 “巫師가 귀신을 섬기며 기도로서 병을 고치고, 복을 청하는 기록이 있다.”<sup>36)</sup>

위의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춤으로 강신하여 신과 접신하는 자가 바로 巫師이다.’ 《國語·楚語》에서 巫師의 남녀 구분이 있어 여성 巫師를 ‘巫’라고 불렀고, 남성 巫師를 ‘覡’이라고 불렀다. 《說文解字》卷五編上 二十六에서 ‘巫’자가 먼저 수록되고, ‘覡’자는 ‘巫’자 다음에 수록된 된 것은 ‘巫’가 ‘覡’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說文解字》覡, 能齋肅事神明者。在男曰覡, 在女曰巫, 從巫從見。<sup>37)</sup>

‘巫師’는 원래는 여성이 담당하였으나 商代에 와서 핵심 권력이 전이되었다. 卜辭 중의 ‘貞人’은 모두 남성이었다. 당시 사회의 형태가 ‘漁獵’에서 ‘農牧’사회로 넘어가면서 부계중심의 사회로 전이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女巫’의 권력이 약화 되면서 ‘男巫’가 일어나고 그 위치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周禮·春官宗伯·男巫/女巫》에서 ‘女巫’와 ‘男巫’의 직책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男巫掌望祀, 望衍, 授號, 旁招以茅. 冬堂贈, 無方無筭, 春招強, 以除疾病, 王弔, 則與祝前. 女巫掌歲時祓除, 釁浴. 旱暵則舞雩, 若王后弔, 則與祝前, 凡邦之大戕, 歌哭而請。<sup>38)</sup>

p.203.

36) 「鐘巫之祭」何休注「巫者, 事鬼神禱解以治病請福者。」(東漢)何休解詁(唐)徐彥疏 <春秋公羊傳注疏>《十三經注疏》8 重刻宋本注疏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30

37) (東漢)許慎《說文解字》卷五編上 二十六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203.  
《說文解字》「覡, 재계하고 경건하게 신명을 모실 수 있는 자. 남자 무당을 「覡」라고 하고, 여자 무당을 「巫」라고 부른다.

38) (東漢)鄭玄注,(唐)賈公彥疏<周禮注疏>《十三經注疏》3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400.  
「男巫는 사방의 명산대천을 바라보는 '망제'를 담당하고, 여러 신을 모시는 '望衍', 제사에 응하는 각종 신에게 명호를 수여하고,茅로 깃발로 삼아, 사방으로 망제할 신을 모신다. 겨울이 오고 송구영신할 때 방향과 원근을 구분하지 않고, 입춘 전날 밤 쿵을 뿌려 복은 부르고 질병을 없앤다. 왕이 군신들의 집에 조문하러 갈 때, '巫'는 '祝'과 함께 왕보다 앞장을 서서 흉악한 기운을 쫓아야 한다. 女巫는 歲時 때 재난과 액을 제거하기 위

‘男巫’는 왕이 봉하할 때 제사를 주관, 질병을 제거하는 주요한 임무를 담당했고, ‘女巫’는 왕후가 봉하할 때 제사를 주관, 기우제를 담당하였다. 이에 대해 陳夢家是 <商代的神話與巫術>에서 은상시대 이미 종교 권력이 ‘男巫’에게 전이되었다고 했다.

商代的女巫, 已僅爲求雨舞雩的技藝人才, 不復掌握宗教巫術的大權, 至此男巫代興, 而女權旁落已極.<sup>39)</sup>

### (3) 고대 중국의 치료 방법—巫師의 치료

#### ① 巫術치료

巫師가 치병을 하는 것을 ‘巫’자의 갑골문에서 보면, 𠩺(《合集》946正)<sup>40)</sup>으로 그 자형이 法器의 모양을 하고 있다. 張銘은 “巫師가 무술을 시행할 때, 항상 사용하는 도구로 방울, 소고, 검, 동경 등을 의미한다.”<sup>41)</sup> ‘巫醫’ 또는 ‘巫’가 바로 ‘醫’라는 기록이 《論語·子路》, 《山海經·海內西經》 등의 문헌에서 살펴보면, 巫師가 의사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 허브로 목욕제재하는 것을 장관 한다. 가뭄이 들면 춤을 추며 기우제를 지내고, 왕후가 조문하러 나가면, 女巫는 女祝과 함께 왕후보다 앞서서 사악한 기운을 쫓아야 한다. 나라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비가를 부르거나 곡하여 신에게 재앙을 없애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39) 陳夢家(1936:20) <商代的神話與巫術>《燕京學報》p.533 「상대의 여자 무당은 단지 기우제를 지내면서 춤을 추는 기예를 갖춘 인재로 그 지위가 하락하였고, 종교 주술의 대권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했다. 이로써 남자 무사는 대흥하였고, 여자 무당의 권력은 이미 잃어버렸다.」

40) 郭沫若(1982)《甲骨文合集》第一冊, 第一期 946正 北京:中華書局 p.260

41) 張銘(2009:1) <從巫,舞,雩解說遠古祭祀活動中的舞蹈>《新疆藝術學院報》p.3.

「老官臺文化遺蹟出土的紅色寬帶大紋彩陶盆上的刻畫符號‘Ⅱ’,‘十’,‘↑’等,認爲‘十’字是最早代表太陽的符號,以後發展成‘卍’字,象徵太陽在太空中旋轉飛翔的形象,‘卍’甲骨文中是祈雨舞名,和古巫字‘𠩺’極爲相似」

《論語·子路》：「人而無恒，不可以作巫醫」朱熹注「巫，所以交鬼神。醫，所以寄死生。」<sup>42)</sup>

《山海經·海內西經》：「開明東有巫彭，巫抵，巫陽，巫履，巫凡，巫相，夾窾窳之尸，皆操不死之藥以距之。」郭注：「皆神醫也。」<sup>43)</sup>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醫’자는 ‘醫’자와 통용하였다. ‘醫’자는 ‘巫’편방을 가지고 있어, 당시 ‘巫師’가 ‘醫師’의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孔叢者·嘉言》, 《廣雅釋詁》에서 살펴보면,

《孔叢者·嘉言》：「夫死病無可爲醫」<sup>44)</sup>, 《孔叢子·執節》「死病無良醫」<sup>45)</sup>

《廣雅·釋詁四》：「醫，巫也。」王念孫疏證：「巫與醫皆所以除疾，故醫字或從巫作醫。」<sup>46)</sup>

陳邦賢은 《中國醫學史》에서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의사를 邪術을 파하는 술사로 비유하였고, 의약은 일종의 마술이나 유희로 여겼으며, 원시적 의사들

42) (南宋)朱熹集注, (民國)簡朝亮述疏(2009) <論語集注補正述疏>《民國時期經學叢書》第四輯 三十八冊, 臺中市: 文叢閣圖書有限公司, 卷七, p.1719.

《論語·子路》「사람이 꾸준한 마음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가 될 수 없다。」朱熹注「무당은 귀신과 교감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의사는 생과 사를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43) (晉)郭璞「山海經校注」(1981) 臺北: 洪氏出版社 p.301.

《山海經·海內西經》：「開明獸가 살고 있는 동쪽에 巫彭, 巫抵, 巫陽, 巫履, 巫凡, 巫相等 6명의 巫師가 있는데, 그들의 주위에는 窾窳의 시체로 둘러싸여 있고, 모두 불사지약을 만들어 窾窳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郭注：「모두 신의이다。」

44) (秦)孔鮒, 王謨輯(1988)<孔叢者>, 《增訂漢魏叢書》臺北: 大化書局 p.1611.

《孔叢者·嘉言》：「무릇 죽을병은 고칠 수가 없다。」

45) (秦)孔鮒, 王謨輯(1988)<孔叢者>, 《增訂漢魏叢書》臺北: 大化書局 pp.1581-1582.

《孔叢子·執節》「죽을병은 양의도 소용이 없다。」

46) (魏)張揖 撰, (清)王念孫疏證《廣雅疏證》臺北: 廣文書局 p.125. 《廣雅·釋詁四》「醫는 巫이다。」王念孫疏：「巫와 醫자 모두 병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醫자는 혹은 巫자를 따르는 醫자로도 통용할 수 있다。」

은 사람이 발병을 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占卜’이었다.”<sup>47)</sup> 중국학자 劉師培도 《劉師培學術論著》에서 陳邦賢과 유사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特古代之時爲醫者多明術數之人，故古以巫醫并稱，而後世復以醫卜星相并稱也。<sup>48)</sup>

점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의식을 진행하여 사악함을 물리치고 환자를 치유하면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질병은 임의로 떠나게 할 수 있거나 혹은 인체에 부가할 수 있는 생물”로 여기게 되었다. 위의 문헌들을 통해 원시 고대 巫師들이 치병하는 방법은 점사를 통해 ‘巫術’을 사용하여 ‘정신적인 치료’를 하였다.

## ② 약물치료

巫師가 치병하는 방법 중 무술 외에 특정한 약초를 사용하였다. 《山海經·海內西經》에서 “皆操不死之藥以拒之.”<sup>49)</sup>라는 문장에서 환자가 통상적으로 巫醫의 지도 아래 은밀히 다 나을 때까지 약초를 복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巫醫의 약초처방전은 비밀에 부침으로 巫醫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 약초 처방은 수술과 약물의 결합으로 수술의 효과가 첨가되어 당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劉孝聖은 《醫療與身體--以先秦兩漢出土文獻爲中心》에서

《五十二病方》中記載三十多條祝由方，但對於鬼神所致的疾病，也有用藥治療，或結合祝由與藥物的醫方。<sup>50)</sup>

47) 陳邦賢(1991) 《中國醫學史》上海:上海書店, p.6.

48) 劉師培(1998) 《劉師培學術論著·周末學術史序·數術學史序》浙江省:浙江人民出版社, p.48.

「먼 옛날에는 의사는 사리에 밝고 술수가 많은 사람으로, 고대에서는 무사와 의사를 함께 호칭하였고, 후대에 와서는 다시 의사와 성상으로 점치는 자를 함께 호칭하였다.」

49) (晉)郭璞《山海經校注》(1981) 臺北: 洪氏出版社 p.301. 《山海經·海內西經》「 모두 불사약을 만들어 瘳瘳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

위의 연구 논문에서 당시 무사가 질병을 쫓는 방법이 ‘祝由術’과 ‘약물치료’를 병행했음을 방증해 준다.

### ③ 꿈자리 치료

‘占卜’ 외에도 ‘夢兆’로 치료하는 사례도 있다. 꿈속에서의 이상한 형체와 색채가 다양한 징조들을 듣고는 巫師들은 꿈속에서 사악한 영이 침입한 것으로 여기고 점을 쳐서 치유의 방법과 장차 초래할 결과를 묻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이 《春秋左傳·成公十年》에 기록되어 있다.

「晉侯夢大曆，披髮及地，搏膺而踊曰：「殺余孫不義，余得請于帝矣。」  
壞大門及寢門而入。公懼，入于室，又壞戶。公覺，召桑田巫，巫言如夢。公曰：「何如？」曰：「不食新矣。」<sup>51)</sup>

갑골문 ‘夢’자는 𠄎(《懷》1633)<sup>52)</sup>자는 許進雄은 《中國古代社會·疾病與醫藥》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하였다.<sup>53)</sup> 또 《古文諧聲字根》에서 ‘夢’자와 ‘巫師’와 연관이 있음을 주

50) 劉孝聖(2008) 《醫療與身體—以先秦兩漢出土文獻爲中心》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p.102. 「《五十二病方》중 삼십 여가지 축유방에서, 귀신으로 인해 일어난 질병은 약물로도 치료하고, 혹은 축유와 함께 약물 처방도 함께 한다.」

51) (周)左丘明, (晉)杜預注, (唐)孔穎達疏「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6 重刻宋板左傳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450. 《春秋左傳·成公十年》 「진경공은 꿈에 악귀를 보았다. 긴 머리를 땅에 끌고, 가슴을 두드리고 뛰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 자손을 죽인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상제에게 복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미 상제의 허락을 받았습시다.』 악귀가 궁문과 침실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진경공은 무서워서 안방으로 숨었고, 악귀는 안방의 문을 부수었다. 진경공이 깨어나 뿔나무발의 무당을 불렀다. 무당이 말한 것은 진경공이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진경공은 『어떠한가?』 무당이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새로 수확한 밀을 드실 수 없습니다.』」

52) 曹錦炎, 沈建華(2006) 《甲骨文校釋總集》卷二十, 上海:上海辭書出版社, p.7163

53) 許進雄(1990) 《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臺北: 商務印書館, p.384.

장하였다. 즉 “巫師는 꿈을 통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해몽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sup>54)</sup>

《春秋左傳·成公十年》와 許進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夢’자에서 ‘巫師’의 또 다른 직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巫師’는 ‘꿈속에서 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을 알아냈고, 또 꿈을 통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고대 ‘巫醫’는 사람의 신체 내의 여러 가지 질병을 이성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巫師’와 ‘醫師’의 구분이 없었다.

### Ⅲ.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 전업의 대두

#### 1) 巫·醫 직능 분리

문명의 발전과 사회 조직의 변동, 학문과 사상의 분화로 ‘巫師’와 ‘醫師’도 그 직능이 분화되었다. 상대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것을 귀신을 의뢰하는 사회상에서 주대로 넘어오면서 고대 중국인의 사람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였다. 주대 사람들은 ‘禮’를 중시하고, 이성으로 사유하며 귀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상대 사람들처럼 맹목적으로 귀신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 《禮記·表記》에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子曰, 夏道尊命, 事鬼敬神而遠之. ……殷人尊神, 率民而事神, 先鬼而後禮. ……周人尊禮, 尚施, 事鬼敬神而遠之.<sup>55)</sup>

54) 許進雄(1995) 《古文諧聲字根》臺北: 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p.80.

「睡於床上以得夢爲巫的專職, 故求夢之人眉有化妝. 古時在作重要決策前, 有族長或巫師禁食身體虛弱以起幻視, 強迫求夢的習俗。」

55) (西漢)鄭元注,(唐)孔穎達疏 <禮記注疏> 《十三經注疏》5 重刻宋本禮記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p.915-916. 《禮記·表記》 「공자왈, 하나라 사람은 군왕의 정치와 교화를 존중하고, 신령을 섬기고 공경하나 政敎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대 사람들은 신을 존중하

주대에 와서는 의학이 巫術에서 점차 독립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巫師와 醫師의 직능도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淮南子·說山》에서

病者寢席，醫之用針石，巫之用糝藉，所救鈞也。<sup>56)</sup>

巫師와 醫師는 ‘사람을 구하는 목적은 같으나 의료수단이 다르다.’ 의사는 ‘針灸’ 혹은 ‘砭石’을 사용하나, 巫師는 신에게 ‘精米’나 ‘菅茅’로 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유 능력이 발달 됨에 따라 이러한 치료 방법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巫師와 醫師는 직능이 점점 분화되어 갔다.

갑골문에서도 巫·醫 직능 분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李良松·郭洪濤는 《出入命門-中醫文化探津》에서 “갑골문에서 ‘小臣’이라는 직책이 출현하는데, 그 직능은 궁정 의사로서 질병을 관리하는 小臣으로, 巫師가 기도를 하면 그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기록하고, 巫醫가 진찰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했다”라고 했다.<sup>57)</sup>

또 다른 갑골문에도 ‘巫醫’의 기록이 있다.

丙子卜，貞：多子其延學攷，不葺大雨？(丙子일에 점복: 상제에게 간절히

고, 군왕은 백성을 거느리고 신령을 섬기니, 신령 모시는 것을 제일의 순위에 두고, 그 다음으로 예의를 둔다.……주나라 사람들은 예법을 존중하고, 은혜 베푸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신령을 섬기고 공경하나, 政敎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56) (西漢)劉安撰, (漢)許慎注 <淮南鴻烈解·說山訓> 《中國基本古籍庫》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據四部叢刊景鈔北宋製作, 合肥: 黃山書社出版發行, 卷十六, p.202.

《淮南子·說山》「병자가 침상에 누워있고, 의사는 돌침으로 치료하고, 무사는 췌메살과 골풀로 신께 기도를 드려 병 낫기를 간구한다.」

57) 李良松·郭洪濤(2007)《出入命門-中醫文化探津》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88.

「甲骨文中記載了一個寫爲『𠄎』的職官, 胡厚宣將『𠄎』釋爲『小臣』, 他說……即管理疾病的小臣。」……『小臣』是掌宮廷醫事政令的專門醫官, 負責執行巫師『龜』和『筮』的醫療主張, 記載君王的醫療過程和安排巫醫進行祈禱診治。」

문습니다. 실습 의사들이 수업하러 갈 때, 돌아오는 길에 큰비가 내리나  
요?)<sup>58)</sup>

여기서 “多子”는 “실습 巫醫”이고, “疫”자는 “치료 방법”이다.

위에 언급한 문헌들을 정리하면, 상대에서 ‘巫醫’는 巫師의 점복의 결정에 따라 의술을 시행하였고, 그 의료행위는 비주동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의학분과

주대에 와서는 醫學이 분과되고, ‘醫事’제도가 세워졌다. 《周禮》중 醫官은 “天官冢宰”에 예속되어있고, 巫祝은 “春官宗伯”으로 예속되어 그 직책이 분명하게 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sup>59)</sup> 《周禮·天官冢宰》에서 의사의 관명과 직책이 食醫, 疾醫, 瘍醫, 獸醫로 세분화 되었다.<sup>60)</sup> 《周禮·春官宗伯》에서는 巫祝이 大宗伯, 小宗伯, 卜師, 龜人, 菴氏, 占人, 筮人, 占夢, 視祿, 大祝, 小祝, 喪祝, 甸祝, 詛祝, 司巫, 男巫, 女巫, 其師로 관직명<sup>61)</sup>이 세분화 되었다.

봉건제도가 와해 된 춘추전국시대의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치, 경제, 학술 방면에서 왕성하게 발전해 나감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사 신분은 증가하는 반면, 巫師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sup>62)</sup> 그

58) 郭沫若(1978) 《甲骨文合集》第二冊, 第一期 3250 蕪北京:中華書局 p.562.

59) “醫官「天官冢宰」에 예속되어있고, 巫祝은 「春官宗伯」에속되어 있다.”

東漢)鄭玄注,(唐)賈公彥疏 <周禮注疏> 《十三經注疏》3 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p.10-15.

60) 의사의 직책:(東漢)鄭玄注,(唐)賈公彥疏<周禮注疏> 《十三經注疏》3 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72.

61) (東漢)鄭玄注, (唐)賈公彥疏 <周禮注疏> 《十三經注疏》3 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259-268.

러나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信巫不信醫, 六不治也.”<sup>63)</sup>라는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비록 의사와 치료법은 날로 증가하였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巫術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의사의 치료법보다 주술의 힘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이 더 일상화된 가운데 주대에서도 여전히 주술과 의사의 처방이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중국 고대 문자에서 본 중국 고대 의료기술

胡厚宣은 <殷人疾病考>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상제가 질병을 내리거나, 사람이 방술을 하거나 저주에 의해 발병한다고 여기고, 질병의 치료도 오직 천신이 고쳐주기를 바라거나 죽은 조상들에게 비는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했다.”<sup>64)</sup> 그래서 상대 사람들은 여전히 내적인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모든 병의 원인을 ‘신령과 조상 혹은 악의적인 주술의 공격’이라고 여겨 이름도 모르는 신의 신비한 힘을 섬기고, 기도, 춤, 제사의 방식을 통해 사악하고 추잡한 것을 제거하여 병을 고치려고 했다.

상대 중기에 이르러 점복 외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였다는 복사 기록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胡厚宣은 <論殷人治療病之方法>에서 “상대 중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병이 나면 소극적으로 기도와 점복 외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였고 치료 기술도 이미 상당한 수준”<sup>65)</sup>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周禮·天官·疾醫》“以五味, 五穀, 五藥養其病”<sup>66)</sup>에서 식이요법과 약물치료가 상대중-

62) 趙容俊(2003) 《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臺北:文津出版有限公司 pp.285-467.

63) (漢)司馬遷 <史記·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 楊家駱(1997)主編《新校本史記三家注並附編二種》四, 臺北:鼎文書局印行 卷一百五 p.2794. 《史記·扁鵲倉公列傳》「무당의 무술은 믿지만 의사의 치료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여섯 번째 불치의 이유이다.」

64) 胡厚宣(1944) <殷人疾病考>《甲骨學商史論叢初集》齊魯大學國學研究所 pp.11-14

65) 胡厚宣(1984) <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中原文物》4期 p.27

66) (東漢)鄭玄注, (唐)賈公彥疏 <周禮注疏>《十三經注疏》3 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후기에서 주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秦漢시기에 와서는 이전 선대들의 의료기술을 총집대성하여 《黃帝內經》을 편찬하여 先秦시대의 의료기술, 시술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長沙馬王堆三號漢墓에서 출토된 帛書, 簡牘에서 진맥법, 처방전, 導引圖(보건 운동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양생법들과 산발적으로 기록된 <卻穀>, <食氣>, <灸法>, <砭法>, <氣候><sup>67)</sup> 등의 내용들을 통해 고대 중국인들의 의료기술과 양생법을 엿볼 수 있다. 그 외 《黃帝內經素問·異法方宜論》에서 “각종 치료 기술은 각기 여러 지역에서 왔고, 환경과 토양에 따라 체질이 달라지고, 그 발병하는 질병도 다르다.”<sup>68)</sup>라고 했다. 그래서 祝由術 외에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였다.

### 1) 祝由術

먼저 축유술을 정의하면, ‘祝’은 ‘명사의 의미로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자’이고, ‘동사의 의미로는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由’는 ‘병의 원인’을 일컫는다. 축유술은 ‘조상신에게 병의 원인을 고하고 기도하여 병을 고치는 의술’이다.

‘巫醫시대’에 ‘祝由術’이 성행하였고, 후세까지 여전히 계승되고 있었다. 《雜禁方》《五十二病方》 등 방서 중에 축유술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

p.73. 《周禮·天官·疾醫》「다섯 가지 맛, 다섯 가지 곡식, 다섯 가지 약재로 그 병을 고침.」

67) 余承林(1995) <古代的醫學與衛生文化>, 《貴州教育學院學報》4期 p.74.

68) 《黃帝內經素問·異法方宜論》「黃帝曰『醫之治病也, 一病而治各不同, 皆愈, 何也? 岐伯對曰: 地勢使然也。故東方之域, ……其病皆爲癰瘍, 其治宜砭石。故砭石者, 亦從東方來。西方者, ……其治宜毒藥。故毒藥者, 亦從西方來。北方者, ……其治宜灸焫, 故灸焫者, 亦從北方來。南方者, ……其治宜微針, 故九針者, 亦從南方來。中央者, ……其治宜導引按蹻。故導引按蹻者, 亦從中央出也。』故聖人雜合以治, 各得其所宜。故治所以異而病皆愈者, 得病之情, 知治之大體也。」

축유술을 사용하는 자는 巫師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축유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 예를 들면 《黃帝內經素問·移精變氣論》에서 “余聞古之治病，惟其移精變氣，可祝由而已”<sup>69)</sup>라는 말에서 축유술은 “천지신명에게 사악함을 제거하여 병이 치유되기를 비는 것”으로 제사 의식을 통해 마음과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즉 ‘심적인 고통을 입으로 내뱉게 하여 마음을 달래주고, 그 사람의 의지를 지지해줌으로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게 하고, 그로 인해 가벼운 병들이 치료되는 것’이다. 중의학에서 말하는 “意示入眠，移情易性，暗示解惑等療法”<sup>70)</sup>의 모체가 되었다. 그럼 축유술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靈樞經·賊風第五十八》에서 “祝이 축유술을 시행하는 때는 특별한 원인이 발병하여 마치 귀신에 의해 병이 난 경우를 치료하는 것”<sup>71)</sup>이라고 했다. 또 周淸泉의 《文字考古》에서 ‘祝’의 초문에 관한 내용과 그 임무에 대해 서술하였다.

兄是祝의初文，兄爲王(皇)，王爲巫之首，若擔負去除疾病的重責大任時，兄

69) <黃帝內經素問·補註黃帝內經素問卷之二·移精變氣論編第十三>《黃帝內經素問解釋》洪元植(1990) 驛 서울:古文社 p40. 《黃帝內經素問·移精變氣論》 「황제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건대 옛날에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그 정(精)을 옮겨 기(氣)를 변화시키기만 하여 병의 실마리를 빌기만 하여도 나올 수 있다 하였다.」

70) 何由, 邱鴻鐘(2008:10)<祝由의內涵實質及作用>《醫學與哲學》(人文社會醫學版),p.74. 「입면, 감정이완, 의심해소 등의 요법」

71) <黃帝內經靈樞經卷九·賊風第五十八> <https://blog.naver.com/weezer5575/222632300267> 2023.03.20. 16시29분 《靈樞經·賊風第五十八》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환자들이 스스로 아는 것들입니다. 사기를 만난 적도 없고 또 두려워하는 감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병이 드는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귀신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입니까? 기백이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또한 이전의 사기가 머물러 잠복하고 있다가 마음에 싫어하는 것 혹은 바라는 것이 있어 혈기가 안에서 어지러워지게 되면 사기와 정기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 미미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므로 귀신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주문을 외우는 축유(祝由)만으로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백이 말하였다. 고대의 무의(巫醫)들은 각종 질병이 서로 이기는 방법을 알았고, 먼저 그 질병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아 주문을 외우는 축유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卽爲“祝”或“呪.”<sup>72)</sup>

‘兄’자는 ‘祝’자의 초문으로, ‘兄’은 ‘王’이고, ‘王’은 ‘巫’의 머리라고 했다. 즉 周淸泉이 말하는 ‘祝’이 ‘王’이라고 일컫던 시대는 원시 모계사회일 때 상황을 말한다. ‘祝’이 질병을 제거하는 중책임을 맡았을 때, ‘祝’ 혹은 ‘呪’이라고 불렀다. 이때 선의적으로 주술을 행하는 것은 ‘祝’이라고 하고, 악의적인 방술을 하는 것을 ‘呪’이라고 하였다.”<sup>73)</sup> 그러므로 축유술은 그 치료법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또 상대 사람들은 內科 관련 질병이 났을 때 치료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告’의 방법과 또 하나는 ‘御’의 방법이 있다.<sup>74)</sup> 李良松은 《略論中國古代傳染病人的安置及傳染病院》에서 “은상시기 이미 역병에 대한 전염성과 확산을 인지하고 있어 환자를 격리하고, 모든 병은 귀신에 의해 왔다고 확신하고 있어 ‘御祭’를 올려 재앙을 없애기 위해 제사 의식과 더불어 축유술을 시행하였다.”<sup>75)</sup>라고 했다. 축유술과 연관된 글자들 ‘祝’, ‘告’, ‘御’, ‘呪’, ‘疾’자를 통해 고대 중국의 축유술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 (1) 기도로써 병을 퇴치하는 방법

##### ① 祝

許進雄은 《中國古代社會·祭祀和迷信》에서 ‘祝’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72) 周淸泉(2003) 「文字考古」 成都:四川人民出版社 pp.783-786. 《文字考古》 「兄자는 祝자의 초문으로 兄은 王이고, 王은 巫의 머리라고 했다. 만약 祝이 질병을 제거하는 중책임을 맡았을 때, 祝 혹은 呪이라고 불렀다.」

73) 周淸泉(2003) 「文字考古」 成都:四川人民出版社 pp.784..

74) 趙容俊(2003) 「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 臺北:文津出版有限公司 pp.232-233.

75) 李良松(1997) 「略論中國古代傳染病人的安置及傳染病院」 『中華醫史雜誌』 p.32.

「殷商之時,已經認識到謀些疾病具有傳染和蔓延的特性.卜辭云:『甲子卜,貞:疾役(疫),不征(延)?貞:疾役(疫),其征(延)?』(《乙》7310) 殷人絕對服從天命,萬病皆歸咎於鬼神.因此,凡遇具有傳染和流行之疾患,除了將病人單室隔離之外,還要舉行祈禱甚則御祭,以冀消災滅禍.」

“祝자의 갑골문은 조상의 신위 앞에서 입을 열고 두 손을 앞으로 뻗어 기도하는 모습”<sup>76)</sup>이라고 했다. ‘巫’자는 《說文解字》에서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춤으로 강신하도록 하는 자”<sup>77)</sup>라고 했고, ‘祝’자는 《說文解字》에서 “신령에게 제사를 올릴 때 기도를 올리는 자”라고 하였다.<sup>78)</sup> ‘巫’자와 ‘祝’자의 《說文解字》의 정의를 보면 의미의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許進雄의 주장에 의하면, “殷周시대의 문헌에서 ‘祝’은 기도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대상은 조상신 위주이다. 조상신의 능력은 天神과 비교하면 그 능력이 떨어져 ‘祝’의 지위는 ‘巫’보다 낮음을 짐작할 수 있고, 전국시대에 와서 ‘祝’의 신분은 ‘巫’보다 상승하였으나 주요 임무는 여전히 신에게 기도하는 직무 위주이고, 天神과 소통하는 능력은 거의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許慎이 《說文解字·祝》에서 인용한 一說 내용과 《周易》을 보면 ‘祝’은 ‘兌’자의 일부가 생략된 글자이고 ‘兌’자 역시 ‘祝’과 같이 입으로 기도하는 자로 ‘巫’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周易·說卦傳》에서 ‘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周易·說卦傳》「兌爲澤、爲少女、爲巫、爲口舌、爲毀折、爲附決。」<sup>79)</sup>

76) 甲骨文的祝字，作一人跪於祖先神位之前，或張口或兩手前伸有所祈禱之狀。《說文解字》給予巫的定義時，『祝也，女能事無形，以舞降神者也。』似乎表示巫與祝的區別只是性別而已。但從商，周的文獻看，巫與祝的工作原是很不同的。祝在卜辭多作動詞的祝禱講，其所祝的對象也以祖先的神靈爲主。祖先神靈的能力要比自然界的神差些，因此可想像祝的地位較巫低。到了戰國時代，祝的身分被提高，以在巫上。但職務仍是以祈禱爲主，不多具與鬼神溝通的能力。許進雄(1990)《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臺北：商務印書館，p.441.

77) 《說文解字》「巫，祝也。女能事無形，以舞降神者也。象人兩隻舞形。與工同意。古者巫咸初作巫。凡巫之屬皆從巫。古文巫。武扶切。」(東漢)許慎《說文解字》卷五編上 二十六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203.

78) 《說文解字》「祝，祭主贊詞者，從示從几口。一曰從兌省。易曰，兌爲口爲巫。」(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上 十二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6.

79) (魏)王弼(晉)韓康伯注(唐)孔穎達疏 <周禮注疏>《十三經注疏》1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186.《周易·說卦傳》「兌자는 늪이란 뜻으로, 소녀인 몸으로, 무당이고, 입으로 천신에게 기도로 나쁜 것을 없애주고, 사람을 결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여기서 “‘兌’자는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 기도하는 자로서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나쁜 것을 없애주고 사람을 결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또 허신이 《說文解字》에서 ‘兌’자를 정의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說文解字》「兌, 說也。從儿巛聲。」段注「說者, 今之悅者。」<sup>80)</sup>

허신은 ‘兌’를 “說也”라고 정의하였고, 단음재는 ‘說’자를 ‘悅’자로 주를 달았다. 즉 ‘兌’자는 ‘悅’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언급한 한 내용을 정리하면, ‘兌’자는 “기도로 신령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兌’자의 갑골문은 兌(《合集》28663)<sup>81)</sup>으로, 周淸泉은 《文字考古》에서 다음과 같다.

兌, 從兒從八, 八象蒸氣之分散, 因此兌爲兒發言時口中之氣向上蒸騰貌.<sup>82)</sup>

周淸泉에 의하면 갑골문 ‘兌’자는 ‘兒’편방과 ‘八’편방을 따르는 글자로 그 뜻은 “兒(祝)이 신령에게 말을 할 때 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즉 ‘祝’은 “제사를 지낼 때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려 신령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祝’자가 동사로 쓰일 때는 “축유를 할 때 병의 원인을 신령에게 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祝, 告也。由, 病之所以出也。」吾謂凡治內傷者, 必先祝由, 詳告以病之由

80) (東漢)許慎《說文解字》卷八編下 八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09. 《說文解字》「兌자는 말 하다는 의미. 兒을 따르고 巛소리이다。」段注「說자는, 오늘날 기쁘다라는 의미이다。」

81) 郭沫若(1981)《甲骨文合集》第九冊, 第三期 28663 北京:中華書局 p.3526.

82) 周淸泉(2003)《說文解字》成都:四川人民出版社 p771. 《文字考古》「兌자는 兒과八을 따르고, 八은 기운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兌자는 兒이 발언을 할 때, 口안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來, 使患者知之, 以不敢再犯.<sup>83)</sup>

위의 인용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祝’은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 명사로 쓰일 때는 “祝由를 할 때 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로, 특히 나라에 역병이 발생했거나 개인이 병이 났을 때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로 풀이할 수 있다. 동사로 쓰일 때는 ‘祝’은 “조상신에게 병을 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告

갑골문의 ‘告’자에 관하여 趙容俊 《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에서 “상대에게서 병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인 치료 방법이다. ‘告’자의 원의는 사람들에게 함정이 있다는 표식을 하여, 행인들에게 잘못 들어가 빠지지 말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글자로 조자되었다. 이후 의미가 확대되어 가벼운 병이 나서 축유를 할 때 조상신에게 병의 상황을 보고하고, 조상신에게 기도하여 도움을 청하는 제사 의식의 행위”<sup>84)</sup> 를 말한다. 갑골복사에도 그 기록이 있다.

貞: 告病于祖乙?<sup>85)</sup> (貞卜: 병을 祖乙 조상신에게 고할까요?)

貞: 告病于祖丁?<sup>86)</sup> (貞卜: 병을 祖丁 조상신에게 고할까요?)

貞: 有疾齒, 不惟有由祖丁<sup>87)</sup>(貞卜: 치통이 祖丁조상신에게서 온 것

83) 何幽, 邱鴻鐘(2008.10) <祝由의內函實質及作用> 《醫學與哲學》(人文社會醫學版) p.74.

「祝자는 기도하며 신령님께 알린다, 由자는 병이 발생한 원인」 무릇 내상을 치료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축유하고, 병의 유래를 상세히 알려서 환자가 그것을 알고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84) 趙容俊(2003) <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 臺北: 文津出版有限公司 p.501.

「甲骨文的告(告)字, 作一個坑陷上插有標識之, 表達警告行人勿誤陷入其中之意. 告爲一種比較消極的治療方法, 僅作向祖先報告病況, 希冀祖先給與援助, 大概爲對較輕病的作法.」

85) 郭沫若(1979) <甲骨文合集> 第五冊, 第一期 13849 北京: 中華書局 p.1963.

86) 郭沫若(1979) <甲骨文合集> 第五冊, 第一期 13853 北京: 中華書局 p.1964.

87) 郭沫若(1979) <甲骨文合集> 第五冊, 第一期 13853 北京: 中華書局 p.1928.

이 아니다.)

위의 갑골문은 병이 나서 조상신 祖乙에게 고하고, 齒病이 나서 조상신 祖丁에게 병을 고하고 낫기를 기도하는 복사이다. 유사한 내용이 《尙書·金縢》에도 기록이 있다. “周武王이 은나라 정복 3년 후, 병이 나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太公, 召公이 周公에게 周武王의 漚유를 위해 점을 치자고 했고, 주공은 삼단의 단을 쌓고 손에는 璧을 들고, 머리에는 珪를 꽂고, 조상신인 太王, 王季, 文王에게 周武王의 漚유를 위해 기도하였다”<sup>88)</sup>라는 내용으로 위의 갑골복사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 관습은 주대의 ‘禱請壽考’풍습으로 은대의 예속을 물려받은 것이다. ‘禱’자 《說文解字》의 정의와 단옥재의 주석을 보면, “‘禱’자는 신령이나 조상신에게 기도로서 알리는 제사이다. 고제의 대상은 조상신이다.”<sup>89)</sup> 갑골문의 “貞告病于祖丁(병을 조상신 祖丁에게 묻는다)”의 내용에도 병이 나면 조상신에게 알리고 낫기를 간구했다. 그래서 何幽, 邱鴻鐘 <「祝由」의 內函實質及作用>에서 ‘祝由’의 대상과 방법들이 서술되어 있다.

祝, 告也。由, 病之所以出也。吾謂凡治內傷者, 必先祝由, 詳告以病之由來, 使患者知之, 以不敢再犯, 又必細體風變雅, 曲察勞人思婦之隱情釘情, 婉言以開導之, 壯言以震驚之, 危言以悚懼之, 必使之心悅誠服, 而後可以奏效如神。<sup>90)</sup>

‘告’란 ‘祝’이 內傷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먼저 조상신에게 병의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漚유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환자도 ‘祝’이 祝由를 할 때,

88) (漢)孔安國傳, (唐)孔穎達正義<尙書正義>《十三經注疏》1重刻宋本注疏臺北:藝文印書館印行, 「爲壇於南方北面, 周公入焉, 植璧秉珪, 乃告大王, 王季, 文王。孔傳:告, 謂祝辭。」

89)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上 八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

「《說文解字》從示從告聲。苦浩切。段玉裁注:(禱)告祭也。自禱以下六字皆主言祖廟。故知告祭謂王制天子諸侯將出 造乎禱。曾子問諸侯適天子。必告於祖。奠於禱。諸侯相見。必告於禱。反必親告於祖禱。伏生尙書歸假於祖禱。皆是也。周禮六祈二曰造。杜子春云, 造祭於祖也。當許時, 禮家造字容有作禱者。」

90) 何幽, 邱鴻鐘(2008:10) <祝由의 內函實質及作用>《醫學與哲學》(人文社會醫學版) p.74.

조상신에게 병의 상태와 발병의 원인을 환자에게 알게 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주는 제사 의식이다. 이 관습은 은상시대의 갑골문의 기록에도 있고 이후 주대에까지 그 예속이 계승 되어졌다.

### ③ 禦

《說文解字》「禦, 祀也. 從示御聲.」段玉裁注「後人用此爲禁禦字.……古只用御字.」<sup>91)</sup>

‘禦’자는 《說文》에서 ‘제사’의 의미이나, 단옥재 주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금지’, ‘방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 그러나 원대 戴侗 《六書故·天文》에서는 ‘제사’의 의미로 풀이하었다.

禦, 祀以禦沴也. 引而申之凡扞禦者曰禦. 禦古亦通御.<sup>92)</sup>

《古字通假會典》에서도 ‘禦’자와 ‘御’자가 서로 통가<sup>93)</sup>한 기록이 있다.

《漢語大詞典》에서 ‘沴’자를 “天地四時之氣不和而生的災害”<sup>94)</sup>라고 풀이하었다. 《六書故·天文》에서 ‘禦沴’이란 “나쁜 기운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는 제사”를 의미했다. 楊樹達은 《積微居甲文說·釋禦》에서 ‘禦’자를 “갑

91)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上 十三 :藝文印書館印行 p.7.《說文解字》「禦,제사하다」 단옥재 주「후대 사람들은 금지, 방어의 의미만 쓰인다. 고대에서는 단지 御 자형으로만 사용하였다.」

92) (元)戴侗 <六書故>《中國基本考籍庫》(200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合肥市: 黃山書社出版發行 卷三, p.27.《六書故·天文》「禦자는 『나쁜 기운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막기 위한 제사』였으나, 이후 그 의미가 확대되어 『방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禦자는 고대에서는 御자와 통용하였다.」

93) <荀子·榮辱>“於是又節用御欲.” 楊注: “御或作禦” 高亨編著(1997)《古字通假會典》山東: 齊魯書社 p569.

94) 《漢語大詞典》(2002) 光碟版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出版社 p.1087.《漢語大詞典》「천지 사시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해 발생하는 재해.」

골문에도 제사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며, 재난과 액을 막아주는 제사”<sup>95)</sup> 라고 했다. 吳其昌《殷墟書契解詁》에서 “御자의 초문은 𠄎, 𠄎이고 복사에서 先公, 先王과 연결해 주는 자로 그 의미는 제사”<sup>96)</sup>라고 했다.

楊樹達은 《積微居甲文說·釋禦》에서 “‘御’의 초문은 ‘𠄎’이고, ‘제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97)</sup>라고 했다. 대만학자 魯實先은 《甲骨文考釋·釋𠄎》에서 “‘𠄎’자가 복사에서 6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祭名이다”<sup>98)</sup>라고 했다. ‘𠄎’자 갑골문은 𠄎(《合集》272正)으로, “어떤 사람이 법기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禦’자는 고대 御자와 통가한 글자이며, 은상시대 巫師 혹은 祝이 법기를 사용하여 신령과 소통을 하고, 신령을 기쁘게 하여 사악한 기운을 없애려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제사’임을 알 수 있다.

## (2) 저주하여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방법

### ① 呪

《黃帝內經靈樞·官能第七十三》에서 “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癰呪病”<sup>99)</sup>의 의미는 “말을 모질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자는 종기에 침을 바르고,

95) 楊樹達(1974)《積微居金文說甲文說》合訂本 臺北: 大同書局 卷下, p17. 「甲文有禦字, 字作禦, 或省作𠄎, 爲祭祀之名, 卽說文之禦字也.……考甲文用此字爲際名者, 往往有攘除災禍之義寓於其中。」

96) 吳其昌(2008)《殷墟書契解詁》湖北: 武漢大學出版社 p.72 「御初文作 𠄎, 𠄎, 從𠄎從午, 午爲矢藁, 像人執矢藁爲馬策之形, 是馭夫也. 而在卜辭中與連屬者, 則誼轉爲祀。」

97) 「甲文有禦字, 字作禦, 或省作𠄎, 爲祭祀之名, 卽說文之禦字也.……考甲文用此字爲際名者, 往往有攘除災禍之義寓於其中。」 楊樹達(1974)《積微居金文說甲文說》合訂本 臺北: 大同書局 卷下, p17.

98) 魯實先講授·王永誠編(2009)《甲骨文考釋·釋𠄎》臺北: 里仁書局, p.218.

99) <黃帝素問靈樞經卷之十一·黃帝內經靈樞·官能第七十三>

《한의학교전DBhttps://mediclassics.kr/books/184/volume/11》2023.03.30. 15:00 PM

병을 저주하는 祝由를 하게 한다.” 라는 기록을 통해 여기서 축유에 해당하는 글자는 ‘呪’자로 ‘祝’의 방법과 달리 ‘병을 저주하고 심한 말을 한 후 그 침을 종기에 바르면 악창이 사라진다는 정신적 치료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악독한 말을 하고 나면 그 침에도 저주가 담겨있다고 여겼다. 그러한 문헌의 기록이 唐代 孫思邈의 《千金翼方·禁經下·禁金瘡第十二》에서 “禁唾惡瘡毒法咒語”의 내용이 있다.

先閉氣三通，神師受告，大道最良，咒曰：「百藥之長，不如吾之膏唾，吾仰天唾殺飛鳥，唾南山之木，水爲之折，唾北山之石，石爲之裂，唾北方之水，水爲之竭，唾白蟲之毒，毒自消滅，唾百瘡之毒，生肌斷血，連筋續骨，肌肉充實。」<sup>100)</sup>

《漢字源流字典》에서도 다음과 같다.

禱告求福是祝，禱告給人降禍也是一種‘祝’。爲了分化字義，後來褒義的祝福用‘祝’表示，而貶義的‘祝禍’則用‘呪’來表示。呪，本是把‘祝’的‘示’旁改爲‘口’旁寫作‘呪’來表示，以突出用口詛咒之意。俗寫作咒。<sup>101)</sup>

100) (唐)孫思邈 <千金翼方·禁經下·禁金瘡第十二> 《中國基本古籍庫》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據元大德梅溪書院本制作，合肥市：黃山書社出版發行(2008) 卷三十，p.535.

《千金翼方·禁經下·禁金瘡第十二》“禁唾惡瘡毒法咒語(금타악창독법주어)” 「먼저 숨을 세 번 멈추고, 도사는 기도를 드리고, 대도가 가장 최선이다. 저주하며 말하기를: 백약 중 가장 좋은 것이라도, 나의 침보다 못하고, 내가 침으로 하늘을 우러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남산의 나무에게 침을 뱉으니, 물줄기가 꺾이고, 북산의 바위에 침을 뱉으니, 바위가 갈라지고, 북방의 물에 침을 뱉으니, 물이 마른다. 백충의 독에 침을 뱉으니, 독이 스스로 소멸되고, 온갖 부수럼의 독에 침을 뱉으니, 생가지에 피가 끊어지고, 근육과 뼈까지 이어져, 근육이 충실해진다.」

101) 谷衍奎編(2006) 《漢字源流字典》北京：華夏出版社，p.508.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祝이다. 기도하여 남에게 화를 내리는 것도 祝이다. 글자의 뜻을 분화하기 위해 후에 긍정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祝 자로 표시하고, 평하하고 화를 기원하는 것은 呪자로 표시한다. 呪자는 본래 祝자의 示편방을 口편방으로 고쳐, 呪자로 쓰였고, 입으로 저주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속자로 咒로 쓴다.」

위의 문헌에서 ‘呪’자는 ‘祝’자에서 분화된 글자로 악독하게 저주하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呪’도 ‘祝’처럼 “제사 의식을 하고 춤을 추며 귀신에게 빌지만, 입으로 병을 저주하며 병마를 몰아내는 축유술이다.”<sup>102)</sup>

갑골문에도 ‘뻬에 질병이 나서 사람과 짐승을 희생으로 제사’를 지낸 기록을 볼 수 있다.

壬卜: 其<sup>卣</sup>子【疾】<sup>夬</sup>妣庚, <sup>卣</sup>三豕.(《花東》38(2))<sup>103)</sup>

갑골복사의 의미는 “자식이 뻬에 질병이 나서 <sup>卣</sup>祭를 지내고 비경(조상신)에게 병마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빌며, 그 대가로 동물의 희생을 드려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sup>卣</sup>’자에 관하여 于省吾는 “‘<sup>卣</sup>’자는 상대 통치계급이 복을 받기 위해 귀신에게 복을 빌고 그 대가로 수많은 人牲과 物牲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sup>104)</sup>고 했다.

이러한 ‘呪’의 풍습이 《老子》, 《莊子》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芻狗’라는 것은 짚을 엮어 만든 개의 모습으로 병자를 위해 축유를 할 때 병자에 붙여 있는 병마로 간주하여 침으로 찌르거나, 밟고, 나중에는 태워버려 환자의

102) 宋兆麟은 이러한 축유술을 “黑巫術”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악의적인 무술”이라고도 한다. 그예로, 禁人, 詛呪, 放蟲, 下毒 등 모두가 사람에게 화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제사 의식은 상대방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흑무술이 개인을 위해하고, 가정과 사회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한다. 宋兆麟(1989)《巫與巫術》成都: 四川人民出版社 pp.235-242.

103) 曹錦炎·沈建華《甲骨文字釋林·釋<sup>卣</sup>》上海: 上海辭書出版社 卷19, p.6493.

「壬卜: 자식의 뻬에 질병이 나서 <sup>卣</sup>祭를 지내며, 조상에게 병마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돼지 세 마리를 희생으로 드렸다.」

104) 于省吾(1980)《甲骨文字釋林·釋<sup>卣</sup>》(全)臺北: 臺灣大通書局印行 p.174.

「從冊聲, 古讀冊如<sup>卣</sup>刪, 與刊音近字通, 俗作砍, 商代統治階層爲了乞福于鬼神, 砍殺許多人牲和物牲」(冊소리를 따르고, 古音으로 冊자는 <sup>卣</sup>성과 刪성으로 읽는다. 刊자와 소리가 비슷하고 글자를 서로 통가했다. 속자로 砍자로도 쓰인다. 상대 통치계층이 귀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 수많은 인신과 동물을 죽여 공양을 드렸다.)

병이 떠나간다”라고 간주했다. 즉 일종의 방술로서 정신치료법이다.

《老子·道德經·五章》天地不仁，以萬物爲芻狗，聖人不仁，以百姓爲芻狗。<sup>105)</sup>

《莊子·南華真經卷第五·莊子外篇天運第十四》夫芻狗之未陳也，盛以篋衍，巾以文繡，尸祝齋戒以將之；及其已陳也，行者踐其首脊，蘇者取而爨之而已。<sup>106)</sup>

## 2) 砭石

### (1) 砭

《說文解字》「砭，以石刺病也。從石乏聲。」<sup>107)</sup>

상대 이전, 주거 환경이 험악하여 원시 고대 중국인은 자주 상처를 입는다. 嚴健民《中國醫學起源新論》에서 “외상은 원시사회에서 주요한 치명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在原始社會時期，外傷時明顯的主要致病因素，因此外治療法是先產生的。<sup>108)</sup>

105) (春秋)老聃撰(三國)王弼注〈老子·道德經·五章〉 蔣錫昌(1970)《老子校詁》臺北：東昇出版社業公司 p.33《老子·道德經·五章》「천지는 인자하지 않아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추구처럼 내버려 두고, 성인은 인자하지 않아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추구처럼 내버려 둔다.」

106) (戰國)莊周〈莊子·南華真經卷第五·莊子外篇天運第十四〉 郭慶繁(1989)《莊子集釋》 pp.511-512. 「저 추구라는 것이 진설되기 전에는 제사 그릇에 담기고, 무너 수놓은 보자기에 쌓여, 축문 읽는 자가 목욕재계하고 받들지만, 제사가 끝나면 버려져, 길가는 사람이 머리와 등을 밟고, 땀나무하는 사람이 가져가 불을 땀 뿐이다.」

107) (東漢)許慎《說文解字》卷九編下 三十三：藝文印書館印行 p.457.《說文解字》「砭자는 뾰족한 돌로 농염을 찌러 치료하는 것이다.」

108) 嚴健民(1999)《中國醫學起源新論》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p.11.

당시 고대 중국인들은 농염이 발생하면, 뽕족한 돌 혹은 나뭇가지로 그어 피와 물이 흐르게 하여 농염이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 악령이나 사악한 것이 제거되어 농염이 치유된다고 생각하여 뽕족한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뽕족한 물건 중 가장 많이 애용한 것이 돌로 만든 ‘砭石’이었다. 이 砭石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 《黃帝內經·素問·異法方宜論》에서 ‘砭石’의 사용처와 유래에 관한 기록이 있다.

故東方之域，天地之所始生也。魚鹽之地，海濱傍水，其民食魚而嗜咸，皆安其處，美其食。魚者使人熱中，鹽者勝血，故其民皆黑色疏理，其病皆爲癰瘍，其治宜砭石。故砭石者，亦從東方來。<sup>109)</sup>

위의 내용을 풀어보면, “동쪽 지역의 백성들은 바다에 인접하고 물이 옆에 있으니 주로 물고기를 먹고 짠 것을 즐기며, 또 물고기는 사람의 몸속을 뜨겁게 하고, 소금은 혈(血)을 이기기 때문에, 그 백성이 모두 안색이 검으면서 주리(腠理)가 성기고 그 병이 모두 용양(癰瘍)으로 나타나니, 그 치료는 “砭石”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砭石”은 또한 동방으로부터 온 것이고, “砭石”의 주 사용처는 종기가 난 곳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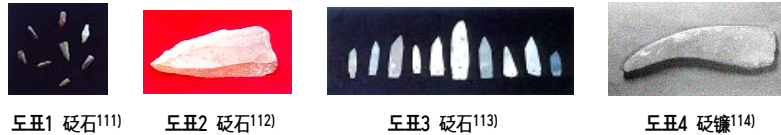
그 외에 魯實先의 《假借遡原》에서 ‘砭’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 살펴보았다.

入脈刺血爲窞，以石刺并爲砭，甲乏并挿之借，示鍼石刺內也。<sup>110)</sup>

위의 내용에서도 ‘砭’자가 “석제 의료도구”로 환부를 찔러 종기를 없애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109) 《黃帝內經·素問卷二·異法方宜論第十二》 <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83> 2023.03.30. 16:00

110) 魯實先(1973) 《假借遡原》 臺北·文史哲出版社 p.94. 「맥에 들어가 혈을 찌르는 것이 窞자이고, 뽕족한 돌로 농염을 터뜨리는 것을 砭자이다. 砭성을 따르고, 挿자의 가차로 쓰인다. 침석으로 몸안을 찌르는 것을 나타낸다.」



### 3) 針法

갑골문과 《說文解字》에서 침을 찔러 치료했던 흔적을 ‘殷’, ‘痲’, ‘鍼’, ‘穿’ 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殷

《說文解字》「殷, 作樂之盛稱, 從彗尪. 《易》曰: 『殷薦之上帝.』」<sup>115)</sup>

허신은 「殷」 자형을 “从彗尪”이라고 분석하였으나, ‘彗’자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갑골문과 금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殷’자를 “作樂之盛稱(성대한 음악을 만든 것을 말한다)”이라고 풀이하였다. 于省吾의

- 111) 도표1 砭石: 石質, 內蒙古呼和浩特大窯村出土。 2023.03.30.14:30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 112) 도표2 砭石: 石器時代。70年代初出土于河南浙川下王崗仰韶文化遺址。長7cm, 寬3cm。尖端鋒利, 兩側有刃, 先民們可用以放血、破癰、去腐肉。現藏于陝西醫史博物館。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2023.03.30.15:00
- 113) 도표3 砭石: 商周。最長18cm, 最短2.5cm。現藏于廣州中醫藥大學醫史博物館。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2023.03.30.15:10
- 114) 도표4 砭镰: 商代。1973年河北藁城台西村第14号墓出土。石質。長20cm, 最寬處5.4cm。置于一漆盒內。經考證系當時的醫療用具。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2023.03.30.15:20
- 115) (東漢)許慎《說文解字》卷八編上 四十八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392.《說文解字》「殷자는 성대한 음악을 만든 것을 말한다. 彗,尪을 따른다.《易》왈: 『성대한 예식으로 상제에게 바친다.』」

《甲骨文字釋林·釋殷》에서 “殷자를 인체 내장에 질병이 있어, 안마기로 복부를 치료하는 것”<sup>116)</sup>으로 풀이하었다. 胡厚宣은 <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에서 于省吾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갑골문 ‘𠄎’字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였다. 胡厚宣은 “어떤 사람의 신체 복부에 질병이 있어 환부에 침을 찌르고 있는 모습으로 ‘↑’자형은 침구이지 안마기는 아니다”라고 했다.<sup>117)</sup>

李懷之<釋「殷」--兼談針刺療法在婦產臨床的最早運用>에서 ‘殷’자에 대해 “‘殷’자는 從月尗으로 ‘身’자는 임신한 임산부의 복부를 지칭하고, ‘尗’자는 어떤 사람이 침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즉, 임산부의 복부에 침을 찌르는 모습”<sup>118)</sup>으로 풀이하었다.

‘殷’자의 고음을 살펴보면 聲類는 影母이고, 韻部는 諄部이다. ‘毘’자는 고음이 影母이고, 운모는 脂部로서 모두 다 喉音으로 발음 부위가 같다. 당시 “聲近義通”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毘’자는 “병자가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를 의미하므로, ‘殷’자의 자음은 ‘毘’자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그렇다면 ‘殷’자는 정상적인 임산부 복부에 침을 찌르지 않고, 李懷之의 의견처럼

116) 于省吾(1981)《甲骨文字釋林》臺北:大通書局 pp.321-323.

「甲骨文字殷作 𠄎 或 𠄎 形, 凡三見(乙四〇四六, 乙二七六, 辭已殘缺), 舊不識. 按殷字從支從攴互作, 契文鼓字從支也作攴, 是其證. ……按許氏釋殷爲作樂之盛, 臆測無據. 段注和其他說文學家皆緣飾許說, 無一是處. ……又許氏列身爲部首, 並謂「身, 歸也, 從反身.」其實, 契文身字作 𠄎 也作 𠄎, 反正互見. 許氏別身于身以及殷從身之說, 不攻自破. 我認爲, 古文殷字象人內腑有疾病, 用按摩器以治之. 商器 卣 簋有 𠄎 字(隸定作 𠄎), 象病人臥于牀上, 用手以按摩其腹部. 又商器 父 癸 卣有 𠄎 字(也見觚文和觶文, 隸定作 𠄎), 象宅內病人臥于牀上, 用按摩器以按摩其腹部, 而下又以火暖之之形. 𠄎 乃 𠄎 字的繁構. 爲三體石經書多士的古文殷作 𠄎, 隸定作 𠄎, 是 𠄎 與殷古通用.」

117) 胡厚宣(1984:4)<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中原文物》,p27. 「甲骨文 𠄎 字象以手持↑治療身體的疾病, ↑是尖銳的針刺工具而非按摩器具, 訓殷爲一人身腹有病, 一人用手持針刺病之形.」

118) 李懷之(1997:3)<釋「殷」--兼談針刺療法在婦產臨床的最早運用>《甘肅中醫學院學報》p.43. 「一人執針爲一孕婦針刺治療. 并舉華佗爲一小產的婦人札針催生死胎, 龐安常採用針刺法使一孕婦順產, 《備給千金要方》和《千金翼方》對難產與死胎不下及胎衣不出等, 採用針刺的方法治療等, 史料典籍爲例證.」

림 “초산이거나 아이를 많이 낳아보지 못한 임산부가 아이를 빨리 낳을 수 있도록 재촉해주거나 혹은 태아가 이미 뱃속에서 사망했을 경우 아기집을 꺼내는 장면일 수도 있다.”<sup>119)</sup> 이때 환자가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殷’자의 음을 ‘毆’자에서 따오고, 그 의미는 “임산부의 복부에 침을 찌르는 모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 疲

《說文解字》「疲，病劣也，從疒及聲。」段注：「劣猶危也。」<sup>120)</sup>

《說文》과 段注에서 ‘病劣’은 “마로 병이 위급함”을 나타낸다. 李亞農은 <殷契雜釋>에서 언급한 ‘𠄎’와 ‘𠄎’자가 ‘疲’자의 갑골문으로 《集韻》에서 ‘疲’에 대한 해석을 인용하며 풀이하였다. ‘疲’자의 음은急速의 ‘急’자와 같고, “신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21)</sup>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이르러,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𠄎’와 ‘𠄎’자는 어떤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고, 의사는 침구를 사용하여 인체에 꽂는 모습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공호흡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虢國太子尸蹶” 사건으로 방증이 된다.

《史記·扁鵲倉公列傳》「扁鵲乃使弟子子陽厲針砥石，以取外三陽五會。有間，太子蘇。乃使子豹爲五分之熨，以八減之齊和煮之，以更熨兩脅下，太子起坐。更適陰陽，但服湯二旬而復故。」<sup>122)</sup>

119) 李懷之(1997:3) <釋「殷」--兼談針刺療法在婦產臨床的最早運用>《甘肅中醫學院學報》pp.43-44.

120)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七編下 三十四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355. 《說文解字》「疲’자는 병이 위급함을 나타낸다. 疒자를 따르고, 及성. 단주: 병이 위급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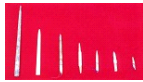
121)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編纂(2000)《古文字詁林》上海:上海教育出版社. 第七冊, p.64.

122) 楊家駱主編(1997)《新教本史記三加家注并附編二種》四, 臺北:鼎文書局印行 p.2792.

「편작은 제자 자양에게 침석을 갈고, 三陽五會(太陽經、少陽經、陽明經. 百會、胸會、

《史記》의 내용은 虢國의 太子가 죽음직전까지 갔을 때, 편작의 침술과 藥熨, 탕제를 사용하여 위급한 태자의 목숨을 살리는 내용이다.

그 외 출토문물에서도 의료 도구로 사용된 침구가 출토되었다. 예로 1976년 河南安陽殷墟婦好墓에서 玉筭가 발견되었다. 먼저 針刺 도구로 사용되다 이후 여자의 비녀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도표5 商周玉石針<sup>123)</sup>도표6 商代婦好墓玉筭<sup>124)</sup>도표7 商代婦好鳥首玉筭<sup>125)</sup>

### (3) 鍼

《說文解字》「鍼，所以縫也。從金咸聲。段注：縫者，以鍼紉衣也。竹部箴下曰，綴衣箴也。以竹爲之，僅可聯綴衣。以金爲之，乃可縫衣。從金，咸聲。今俗作針。」<sup>126)</sup>

聽會、氣會、臍會)에 침을 놓으라고 했다. 잠시 후 태자가 깨어났다. 제자 豹에게 5분의 藥熨를 준비하고 8분을 감한 약을 섞어 달여 양 옆구리 아래를 약포로 감싸고 번갈아 찜질을 하도록 했다. 태자는 일어나 앓을 수 있었다. 음양을 더욱 조화시켜 탕제를 먹은 지 20일 만에 몸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123) 도표5: 商周玉石針, 最長18cm, 最短2.5cm. 現藏于廣州中醫藥大學醫史博物館.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2023.3.30.15:00 검색

124) 도표6: 商代婦好墓玉筭 <古代女人打扮起來有多用心? 商代「婦好墓」竟然有近千件首飾>  
2023.3.30.17:30 검색  
<https://baijiahao.baidu.com/s?id=1644547587431307035&wfr=spider&for=pc>

125) 도표7: 商代婦好鳥首玉筭, 李經緯主編(1992)《中國古代醫史圖案》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8.

126)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四編上 九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713. 《說文解字》「鍼, 꿰매는 까닭이다. 金을 따르고 咸성이다。」단주: 「縫자는 침으로 옷을 꿰매는 것이다. 竹부의 箴자 아래 풀이하기를, 『옷을 엮는 것을 箴이라고 한다.』 竹변 글자는, 단지 바늘로 옷을 엮는 것이다. 金변 글자는, 곧 옷을 꿰매는 것을 말한다. 金자를 따르고, 咸성. 지금 속자인 針자이다.」

단주에 의하면 “今俗作針”이라는 말에서 중국 고대에서 말하는 ‘鍼’이 바로 ‘針’이라고 했다. 청동기가 다량으로 사용된 시기는西周시대로 의료기구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청동제 침은 주로 피를 흘리게 하거나, 농을 짜내는 외과 도구로 사용되었다.



도표8 西周青銅針<sup>127)</sup>

#### (4) 窅

《說文解字》「窅，入脈刺穴謂之窅，從穴甲聲。段注：蓋古醫經之言。」<sup>128)</sup>

‘窅’字는 “맥에 들어가 혈 자리에 침을 놓는 것”으로, 침으로 혈도에 들어가 막힌 혈을 뚫어서 병을 고치는 침술을 의미한다. 맥을 잡고 정확한 혈도에 침을 놓는 것은 다년간의 임상실험과 기술의 연마를 요구하는 치료 기술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고대 중국의 치료법 중 가장 나중에 완성된 치료법이다.

#### 4) 按摩

불은 고대 인류의 대발견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인류 기

127) 도표8: 西周青銅針, 陝西扶風齊家村出土。通長9.2cm, 針體呈三棱形, 末端尖銳, 可以放血、刺病。現藏于寶雞市周原博物館。2023.03.31. 14:30 검색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128)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七編下 二十四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350. 《說文解字》「窅字는 맥에 들어가 혈 자리에 침을 놓는 것이다. 穴을 따르고 甲성이다。」단주: 「모두 옛 의경의 말이다。」

본적인 본능이다. 불로 먹을 것을 요리하고, 남은 불로 몸을 쪼면 따뜻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몸이 얼어 감각이 무뎠던 것이 풀어지고, 어느 날 달아오른 돌을 환부에 대어 보니 고통이 감소 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이 세월이 흘러 치료 경험이 누적되어 ‘熱慰’라는 치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說文解字》에서는 ‘慰’자는 없고, ‘尉’자만 기록되어 있다. ‘尉’는 ‘慰’자의 초문이다.

### (1) 尉(尉)

《說文解字》「尉，從上案下也。從𠂔又持火，所以申繪也。段注：會意𠂔，古文仁，又猶親手也。……徐本訂說，手持火之意也。字之本義如此。……通俗文曰，火斗曰尉。」<sup>129)</sup>

허신은 篆文을 분해하여 “從𠂔又持火”라고 했고, 段注에서 “𠂔자는 仁의 古文字로 ‘𠂔又’을 ‘親手’라고 해석하여, 글자의 본의는 손으로 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풀이했다.

상고시대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몸이 부하를 견디지 못해 신체 결림과 외상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본능적으로 차가운 돌로 피부를 문질러 열을 식히거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안마의 유래가 되었다. 계절의 변이에 따라 환부의 증상도 다르다. 추운 겨울이 되면 몸이 얼은 부위나 환부에 달군 돌을 문지르면 몸이 가벼워지고 환부의 통증이 감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熱慰’라는 치료법

129)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編上 四十六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87. 《說文解字》「尉， 위에서 아래를 누른다. 𠂔를 따르고 친손으로 불을 쬐다. 그래서 비단을 평평하게 편다는 뜻이다。」段注：「회의자 𠂔， 仁의 고문자이다, 또 손수 라는 의미이다.……徐本이 허신의 설을 수정하여, 손에 불을 든 것으로 글자의 본의가 이리하다.……통속문왈. 다리미를 尉라고 한다.」

이 생기게 되었다. ‘廙’자는 火변을 따르므로 ‘달군 돌을 환부에 문지르는 안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마의 치료법이 ‘疔’자의 갑골문에 기록이 있다.

‘疔’자의 갑골문은 “𠄎(一期 甲3280), 𠄎(一期 合241)으로, 사람이 침상에 누워 손으로 복부를 어루만지는 모습이다. 아마도 아랫배에 병이 난 의미이다. 𠄎자, 𠄎자, 𠄎자를 따른다”<sup>130)</sup>이다. 여기서 ‘𠄎’은 ‘침상’, ‘𠄎’은 ‘사람’, ‘𠄎’은 ‘손’으로 ‘寸’으로 隸定 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疔’자로 그 뜻은 ‘아랫배가 아픈 병’이다. 그래서 《說文解字》에서 “疔, 小腹病”<sup>131)</sup>으로 풀이였다. 고대 중국인들은 배에 탈이 나면 ‘손’으로 혹은 손에 ‘돌’을 사용하여 복부를 안마하여 그 고통을 줄여 치료하였다. ‘廙’자도 같은 의미의 치료법이다.

## 5) 灸法

《黃帝內經·素問·異法方宜論》에서 “灸法은 북방에서 온 치료법으로 뱃속에 한기가 가득하여 ‘脹滿’이 생길 때 실시하는 치료법이다.”<sup>132)</sup> ‘灸法’은 ‘砭石’과 ‘熱慰’의 기초위에 탄생된 치료법으로 단지 사용하는 도구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簡明中國科學技術史話》에서 ‘灸法’의 기원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즉 “사람들은 불을 쬐어 난방함으로써, 달궈진 돌이나 모래를 식물의 줄기, 잎 또는 동물의 모피로 감싼 후 몸의 어느 부분에 놓아두면, 어떤 풍한으로 인한 복통과 습한 냉기로 인한 관절통을 없애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熱慰法’이다. 반복적인 실천과 개

130) 徐中舒(1993)《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p.839.

131)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七編下 三十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353. 「象人臥牀以手撫腹之形, 會小腹有病之義. 從𠄎從𠄎從𠄎」

132) 《黃帝內經·素問卷二·異法方宜論第十二》<https://medicclassics.kr/books/162/volume/83> 2023.03.30. 16:20 《黃帝內經·素問·異法方宜論》「北方者, 天地所閉藏之域也. 其地高陵居, 風寒冰冽, 其民樂野處而乳食, 藏寒生滿病, 其治宜灸熇, 故灸熇者, 亦從北方來。」

선을 거쳐 건조에 불을 붙이고 국부적으로 고정된 온열 자극을 가하면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뜸법의 시작”이라고 했다.<sup>133)</sup>

(1) 灸

《說文解字》「灸, 灼也. 從火久聲.»<sup>134)</sup>

(2) 灼

《說文解字》「灼, 灸也. 從火勺聲.» 段注: 「猶身有病, 人點灸之. 醫書以艾灸體謂之壯.»<sup>135)</sup>

허신은 ‘灸’자와 ‘灼’자 두 글자를 互訓 하였다. ‘灼’字 段注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 병이 났을 때 건조에 불을 붙여 몸에 붙이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灸’의 치료법은 마른 쭉에 불을 붙여 환부에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즉 ‘쭉뜸’이다. 灸法에 사용되는 쭉은 생쭉이 아니라 말려서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한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 “艾灸法을 할 때 쭉은 잘 말려 잘 보관된 쭉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다.<sup>136)</sup>

133) 陳美東, 杜石然, 金秋鵬, 范楚玉(1992)《簡明中國科學技術史話》臺北: 明文書局 p.27.

「人們通過烤火取暖, 知道把燒熱的石頭或砂土用植物的莖、葉或動物的毛皮包裹起來以後放在身體的某個部位, 能消除或減輕某些因風寒而引起的腹痛和因濕冷而造成的關節痛, 這就是最早的熱慰法. 經過反覆實踐和改進, 懂得把乾草點燃, 進行局部固定的溫熱刺激, 能醫治更多的疾病. 這就是灸法的開始。」

134)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編上 四十七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88.《說文解字》「灸자는 불사르다. 火를 따르고 久성이다.»

135)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編上 四十七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88.《說文解字》「灼자는 뜸을 뜨다. 火를 따르고 勺성이다.» 段注: 「사람의 몸에 병이 났을 때 건조에 불을 붙여 몸에 붙이는 것. 醫書에 쭉뜸을 한 몸을 壯이라고 불렀다.»

136) (明)李時珍《本草綱目》《中國基本古籍庫》(2008)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據清文淵閣四庫全書本製作, 合肥: 黃山書社出版發行 卷十五, p.698. 「凡用艾葉, 需用陳久者, 治令

## (3) 艾

《說文解字》「艾, 灸臺也. 從艸乂聲。」<sup>137)</sup>

《爾雅·釋草》에서 “艾, 氷臺.”<sup>138)</sup>라고 했다. ‘氷臺’는 ‘쑉’의 별명이다. 《周禮·秋官司寇·司烜氏》「司烜氏는 햇불을 관장하는 자로 밝은 불을 태양에서 취한다.»<sup>139)</sup>라는 기록이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陽燧’<sup>140)</sup>로 태양의 불을 취했다. 태양의 불은 천지간의 순수한 陽의 기운이라고 여겼다. 또 고대 중국인들은 불을 ‘天火’, ‘地火’, ‘人火’ 3종으로 나누고, 天火도 ‘陰火’와 ‘陽火’로 나누고, 陽火는 ‘太陽眞火’와 ‘星精宿火’<sup>141)</sup>로 나누었다. 쑉뜸을 뜰 때 ‘陽燧’를 이용해 ‘太陽眞火’를 모아 쑉뜸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시 고대 중국인들은 불을 숭배했고, 불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성한 불을 이용해 ‘凶’과 ‘厄’을 없애려고 했고, 원인 모를 질병을 불로 치료하려고 했다. 그래서 李建民은 《生命史學-從醫療看中國歷史》에서 “뜸법은 쑉을 훈증하여 인체의 역귀를 제거하는 주술요법에서 비롯되었다. 소위 맥이란, 처음에는 인체의 역귀가 침입할 수 있는 통로이다. 경맥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숙뜸을 행한 巫醫들’ 일 것이다. 뜸법은 ‘뜸법’과 ‘비뜸법’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뜸 연료는 ‘유황’, ‘뽕나무 가지’, ‘복숭아 가지’ 등 ‘주술성이 강한 뜸법’이다. 그러나 ‘숙뜸’은 전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뜸법의

細軟, 謂之熟艾, 若生艾灸火, 則易傷人肌脈。」 「무릇 쑉을 쓰려면 오래 묵은 것을 써야 하는데, 치령은 가늘고 부드러우며, 이를 익은 쑉이라고 하는데, 만약 생쑉으로 뜸불을 피워 사용하면 사람의 근맥을 상하게 하기 쉽다.」

137)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下 二十一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32. 《說文解字》「艾, 氷臺이다. 艸를 따르고, 乂성이다.」

138) (晉)郭璞注(宋)邢昺疏<爾雅注疏>《十三經注疏》8 重刻宋板注疏 藝文印書館印行 p.141

139) (漢)鄭元注(唐)賈公彥疏<周禮注疏>《十三經注疏》3 重刻宋板注疏藝文印書館印行 p.550 《周禮·秋官司寇·司烜氏》「司烜氏, 掌以夫燧, 取明火於日.」

140) 陽燧(양수): 구리로 만든 오목 거울로 햇빛을 한곳으로 모아 뜸쑉에 불을 붙이는 기구이다.

141) (明)李時珍《李時珍醫學全書·本草綱目》(1999)北京:中國醫學出版社 p.259.

주류이다.”<sup>142)</sup>라고 했다.

‘灸法’은 원시 고대 중국인들의 주술적 용도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러 이미 정식 의료기술의 일환으로 탈바꿈 하였다.

‘艾’자의 자음은 乂聲으로 艾자는 ‘풀을 베다’라는 의미가 있다. ‘艾’자의 갑골문은 𠄎(《合集》822正)<sup>143)</sup>, 𠄎(一期, 前一·四四·七)<sup>144)</sup>이다.

《說文解字》「艾, 芟艸也。从ノ从乂, 相交。」段注「艸部曰。艾、艾艸也。二篆爲轉注。周南曰。是刈是漙。周頌曰。奄觀銍艾。艾者、乂之假借字。銍者、所以刈也。禾部曰。穫、刈穀也。是則芟艸穫穀總謂之艾。鄭箋詩云。艾末曰艾。刀部有刈。金部有鎌、有鏃。所以芟艸也。銍則穫禾短鎌也。」<sup>145)</sup>

《說文解字》「艾, 刈艸也。從艸從艾。段注「見周頌、周禮, 毛云, 除艸曰艾。從艸艾。……艾取殺意也。」<sup>146)</sup>

‘艾’자는 芟草로 ‘풀을 베다’라는 뜻이고, 艾자는 ‘艾자를 가차한 글자’이다.

- 142) 李建民(2005)《生命史學-從醫療看中國歷史》臺北:三民書國股份有限公司, p.26, p.30.  
「灸法起源於以燻燒艾草禳除人體內疫鬼的咒術療法; 所謂脈, 起初是侵入人體內疫鬼通路。而最早發見經脈存在的人, 很可能即是上述進行艾咒療法的巫醫們。……灸法可分爲艾灸法與非艾灸法二類。後者施灸的燃料包括硫黃, 桑枝, 桃枝等咒術性強烈的灸法。但艾灸法從戰國直到今天是灸法的主流。」
- 143) 郭沫若(1982)《甲骨文合集》第一冊, 第一期 822正 北京:中華書局 p.218.
- 144) 徐中舒(1993)《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 p.1353.
- 145) (東漢)許慎《說文解字》卷十二編下 三十二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633.  
《說文解字》艾, 艾이다. 刈, 刈를 따르고 서로 어울림. 단주: 「艸部와 艾, 艾풀이다.」 두 글자가 전주하였다. 周南을, 艾자는 베다이다. 周頌을, 눈앞에서 갑자기 낮으로 艾를 베네. 艾자는 艾자의 가차자이다. 銍자는 刈이다. 禾部을, 穫자는 刈穀이다. 풀을 베고 곡식을 수확하는 총칭을 刈라고 부른다. 鄭箋詩을, 곡식의 열매를 베는 것이 艾이다. 刀部에는 刈자 있고, 金부에 鎌자, 鏃자가 있다. 풀을 베는 것들이다. 銍자는 벼를 수확하는 짧은 낫이다.
- 146)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下 四十三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3. 《說文解字》「艾자는 풀을 베는 것이다. 艾, 艾를 따른다. 단주: 周頌과 周禮에서 毛云, 풀을 베는 것을 艾이다. 艾, 艾를 따른다.……艾자는 殺意의 의미를 가진다.」

‘뗏’자는 從冫으로, 段注에서 冫자는 “殺意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했다. 그래서 주술을 할 때 ‘쑥’을 사용하는 이유는 ‘악귀를 위협하고 쫓는 주술용 풀’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주술을 하고 난 ‘쑥’을 병자의 환부에 붙이면 사악함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쑥을 사용한 치료법이 발달하여 전국시대에 와서는 ‘쑥을 이용한 뜸’이라는 치료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 6) 藥物

### (1) 毒

고대 중국인들은 외상을 입었을 때, 특정한 식물을 사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채집과 어렵의 활동을 하면서 독이 있는 음식을 잘 못 먹으면 ‘以毒攻毒’의 개념도 생겨 소량의 독을 섭취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說文解字》「毒, 厚也。害人之艸, 往往而生。從艸從毒。」 段注「因害人之艸, 往往而生, 往往猶歷歷也。其生蕃多則其害尤厚, 故字從艸。引伸爲凡厚之義。」<sup>147)</sup>

《說文》에서 고대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풀들을 먹어보고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풀의 성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풀들을 모두 毒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독으로 간주 된 풀은 손을 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식력은 강했다. 그리고 독풀의 폐해가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허신은 毒을

147)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下 二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22. 《說文解字》「毒, 두껍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풀이다. 그 생명력 왕성하다. 艸, 毒을 따른다.」 단주: 「사람을 해치는 풀로, 그 생명력은 왕성하다. 往往은 歷歷과 같은 뜻이다. 그 풀의 생명력과 번식은 많아 그 해가 심히 크다. 그러므로 艸를 따른다. 인신하여 무릇 두텁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厚也(피해가 깊다)”라고 풀이하였다. 《尙書·說命上》에서 독을 약으로 쓰인 예를 유추해볼 수 있다.

若藥弗暝眩，厥疾弗瘳。<sup>148)</sup>

즉 “약을 복용 후 머리가 빙 돌고 눈이 어지러운 현상이 없으면, 병은 완치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어떤 병은 독성을 가미하지 않으면 완치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說文解字》「癩，楚人謂藥毒曰痛癩。段注：方言曰，凡飲藥傳藥而毒、南楚之外謂之刺。北燕朝鮮之間謂之癩。東齊海岱之間謂之眠。或謂之眩。自關而西謂之毒癩，痛也。郭云，癩、癩皆辛螫也。」<sup>149)</sup>

《說文》‘癩’, ‘癩’자는 ‘약에 독성이 있어 복용 후 몸이 몹시 아픈 것’을 의미한다. “1973년 河北蒿城臺西村遺址에서 ‘桃仁’, ‘郁李仁’ 등의 약제가 출토되었다. 이 약제는 치명적이진 않은 일부의 독성을 약에 가미하여 수면제, 설사약, 구토약, 멀미약 등을 제조하여 복용하였다.”<sup>150)</sup> 이것은 상대 사람들이

148) (漢)孔安國傳(唐)孔穎達正義<尙書正義>《十三經注疏》1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140 《尙書·說命上》「약을 복용 후 머리가 빙 돌고 눈이 어지러운 현상이 없으면, 병은 완치되지 않는다」

149)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七編下 三十五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p.356. 《說文解字》「癩자는 초나라 사람들은 약이 독할 때 왈 약독이 나서 아프다 라고 한다.」단주 「방언왈, 무릇 약을 마시고, 약을 마르고 난 후 생겨난 것을 毒이라고 한다. 다. 南楚지역 외는 刺라고 한다. 북쪽 연나라 조선 지역에는 癩라고 한다. 동쪽 제나라 바다와 산간지역에는 眠이라고 하거나 혹은 眩이라고 했다. 관서지역의 毒癩는, 아프다라는 뜻이다. 郭云: 癩、癩자 모두 독충에 쏘여 아픈 것을 말한다.」

150) 1973年, 河北省的考古隊在藁城市台西村的商代遺址出土了砭石和桃仁、郁李仁等三十余枚藥用植物種仁, 這些植物種子是河北省乃至全國目前發現最早的藥物實物之一, 反映了三千多年前我國醫藥史的發展水平, 對於醫藥史的研究具有重要意義. 郁李仁作爲藥材最早記載于「神農本草經」, 被列爲下品: “味酸, 平. 主大腹水腫, 面目四肢浮腫, 利小便水道.”

<考古發現的郁李仁> 時間: 2023-03-02 來源: 中國中醫藥報8版 作者: 吳文博

<http://www.cntcm.com.cn/news.html?aid=217789> 2023.04.01. 15:00 검색

그 당시 약을 조제하는 지식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藥

《說文解字》「藥, 治病艸, 從艸, 樂聲. 段注: 玉篇引, 作治疾病之艸總名。」<sup>151)</sup>

‘藥’자는 “병을 치료하는 풀”을 말한다. 단주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풀의 총명”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병을 치료하는 풀의 총명인데, ‘藥’자는 從艸, 樂聲으로 왜 ‘樂’자에서 음을 취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樂’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3) 樂

《說文解字》「樂, 五聲八音總名. 象鼓鞀. 木, 虞也. 段注: 樂記曰,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謂之樂. 音下曰: 宮、商、角、徵、羽, 聲也. 絲、竹、金、石、匏、土、革、木, 音也. 樂之引伸, 爲哀樂之樂. 象鼓鞀. 鞀當作鞀, 俗人所改也. 象鞀鼓, 謂鞀也. 鼓大鞀小. 中象鼓. 兩旁象鞀也. 樂器多矣. 獨像此者. 鼓者春分之音. 易曰. 雷出地奮豫. 先王以作樂崇德. 是其意也. 木, 謂從木. 虞也. 虍部曰: 虞, 鐘鼓之柎也。」<sup>152)</sup>

151)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一編下 四十二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42. 《說文解字》「藥, 病을 치료하는 풀이다. 艸를 따르고, 樂성이다.」 단주: 「玉篇을 인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풀의 총명이다.」

152) (東漢)許慎《說文解字》卷六編上 五十四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267. 《說文解字》「樂, 「오성팔음의 총명이다. 기병이 말을 탄 채 치는 북의 형상이다. 木자는 쇠북 거는 틀이다.」 단주: 「樂記와, 외적인 사물에 감격하여, 소리를 형성한다. 소리는 서로 반응한다. 고로 변화가 생기고, 변화는 일정한 규율을 이루는데, 이것을 퓌이라고 한다. 이러한 퓌을 여러 악기 즉 干、戚、羽、旄으로 연주하고 춤을 곁들면 樂이 형성된다. 퓌아래와, 宮、商、角、徵、羽가 있는데 소리라고 한다. 絲、竹、金、石、匏、土、革、木은 퓌이라고 한다. 樂자가 인신되어, 슬프고 기쁜 노래가 되었다. 기병이 말을 탄 채 치는 북의 형상이다. 鞀자를 鞀자로 여겼다. 이후 속인들이 고친 것이다. 鞀을 말한다.」

단옥재는 음악의 관점에서 ‘樂’자를 해석하였고, ‘樂’자를 ‘𪛗’자형과 ‘木’으로 분해하였다. ‘𪛗’자형은 “鞀鼓”<sup>153)</sup>라고 했고, 글자中间的 ‘白’자는 “大鼓”, 양편의 ‘宀’자는 “小鼓”이고, ‘木’자는 “鼓架”라고 했다. 그래서 ‘樂’자의 문자적 해석으로는 “鼓樂器”에 해당한다.

민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周清泉은 《文字考古》에서 ‘宀’자는 “成童이 되기 전의 아이”<sup>154)</sup>를 말한다.

또 周清泉은 聲訓의 관점에서 “상대에는 나무를 어머니라고 여기는 원시신앙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무(어머니)가 열매(자식)를 맺듯이 자식을 양육하고 연결된 모습이고, 생명과 신체는 어머니 나무의 은혜”라고 여겼다.<sup>155)</sup>

‘𪛗’자형은 두 개의 ‘宀’자이다. ‘宀’자와 ‘𪛗’자의 《說文解字》 풀이를 보면 “宀자는 갓난아기의 모습이고, ‘𪛗’자는 두 개 이상의 宀자 결합하여 ‘미약함’을 나타낸다.<sup>156)</sup> ‘木’자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를 상징한다.”<sup>157)</sup> 고 했다.

북은 크고 비고는 작다. 중형의 북이다. 양옆엔 비고의 모양이다. 鼓는 春分の 음이다. 易經爻: 우레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렸다. 선왕이 음악을 만들어 덕을 기린다. 이것이 그 뜻이다. 木은 木을 따르고, 虞이다. 庠部爻: 虞자는, 쇠북 거는 틀 기둥이다.]

153) 鞀鼓: 1.古代用于祀神之鼓, 屬六鼓中雷鼓一類. 2.古代軍中所用之樂鼓.

<https://baike.baidu.com/item/%E9%9E%9E%E9%BC%93/3553122?fr=aladdin>  
2023.04.01. 검색

154) 周清泉(2003)《文字考古》成都: 成都人民出版社 pp.602-621. 「成童이 되기 전, 즉 갓 태어난 아들부터 여덟 살에 성동이 되기까지의 기간이다. 宀에 속하는 자는, 여러 어머니를 따라 여자 무리에 살면서 양육해야 하는 어린아이이거나 보살펴야 하는 아이이다. 宀의 생명주기는 성동이 되기 전까지이다. 즉 이마에 문신을 한 성현이 되는 것부터 전환점이 된다. 즉 宀은 宀를 거쳐 이루어 진다..」

155) 周清泉(2003)《文字考古》成都: 成都人民出版社 pp.150-155. 「樂字, 從𪛗從木, 木乃空桑木母, 利用中國文字聲訓之法, 訓木爲母也, 推測在商人的原始意識之中將樹木結成果實與母親孕育子息連結在一起, 也就是商人具有木爲母的原始信仰, 認定生命與身體都來自於木母的恩澤」

156) (東漢)許慎《說文解字》卷四編下 二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160. 《說文解字》「宀, 小也, 象子初生之形.」《說文解字》「𪛗, 微也, 從二宀.」

157) 周清泉(2003)《文字考古》成都: 成都人民出版社 pp.150-155. 「樂字, 從𪛗從木, 木乃空桑木母, 利用中國文字聲訓之法, 訓木爲母也, 推測在商人的原始意識之中將樹木結成果實與母親孕育子息連結在一起, 也就是商人具有木爲母的原始信仰, 認定生命與身體都來自於木母的恩澤.」

周清泉은 《文字考古》에서 상대 사람들의 사유를 분석하여 ‘玄’자, ‘玄’자 글자 간의 의미 연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玄’자는 8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의미하고, 상족의 어린아이는 반드시 과도기 중 의례를 통과해야 해야 하는데, 즉 ‘再生’의 의미로 巫禮儀式을 거쳐 成童이 된다. 현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고대의 영아들은 생존율이 낮았다. 그래서 8세가 되면 이마에 문신을 새기고 검은색을 칠하는 성동례를 치른다. 이 의례는 ‘어린아이가 대자연에서 생명의 위협에서 무사히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玄’자는 어린아이의 이마에 검은색 문신을 말한다. ‘玄’자가 《說文》에서 ‘붉은빛을 띤 검은색으로 다’고 풀이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 사람들이 이마에 문신을 새겨 붉은색이 남아 있는 흔적에 먹으로 칠해 검은색이 되었다. 그래서 검은색에 붉은빛을 띄게 되는 것이다.”<sup>158)</sup> 라고 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樂’자는 ‘상대 사람들의 成童禮와 관련이 있는 글자로, 성동례 의식의 과정에서 이마에 검은색으로 문신을 새김으로 성동례가 치러진다. 이때 새긴 문신 자국이 아물면서 ‘再生’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어린아이 시절의 버릇과 생각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藥’자가 ‘樂’자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 (4) 瘵

《說文解字》「瘵, 治也. 從疒樂聲. 瘵, 或從瘵。」段注: 「方言曰, 瘵, 治也. 周禮注云, 止病曰瘵。」<sup>159)</sup>

158) 周清泉(2003) 《文字考古》成都: 成都人民出版社 p.612.

「玄是八歲以下的幼子, 商族的孺子必須通過過渡, 再生的巫禮儀式才能變態成童, 以現代眼光來省察, 或因古時嬰兒夭折率高, 於是遲至八歲舉行黥額成童禮, 代表孺子通過大自然於生命的考驗, 玄字就是幼子黥額的紋形……玄字, 商人在刻紋中填滿黑泥使成黑色, 於是刻痕的赤色被墨塗填, 就成了黑中帶赤的玄色。」

159) (東漢)許慎《說文解字》卷七編下 三十五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356. 《說文解字》「瘵, 치료하다는 뜻이다. 疒을 따르고 樂성이다. 瘵자는 瘵를 따른다。」단주: 「방언왈, 瘵자

‘疢’ 편방은 ‘질병’을 의미하고, ‘樂’자는 ‘재생’을 뜻을 나타내면서 소리도 겸한다. 그래서 ‘療’자는 ‘치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療’자와 ‘療’자는 의미가 같다.

成童禮를 치를 때 온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나와 축하를 해주었는데, 그 의식이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래서 그 풍습이 후세에 이어져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악기’를 나타내는 ‘樂’자와 ‘기쁨’을 나타내는 ‘樂’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沈光海는 <先秦의 ‘樂’>에서 ‘樂’이 주대에 와서는 악기나 음악만을 가리키지 않고, 음악, 시, 춤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였다. ‘樂’의 용도 중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周禮·大司樂》에서 “樂을 나누어 차례를 지낸다. 추모를 하고, 향유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sup>160)</sup> 그래서 단옥제가 “樂引申爲哀樂之樂(樂자가 인신되어 애락의 樂)”<sup>161)</sup>이라고 하여 “기쁘다”라는 의미로 주를 달았다.

## 5. 나오며

고대 중국의 의학의 기원설은 의견이 분분하다. 앞 문장에서 언급한 醫자와 醫자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거대한 자연계의 힘에 대한 공포, 위험한 사물에 대한 도피, 귀신의 출몰에 대한 놀라움 등으로 원시사회 사람들은 질병에 취약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이 센 보호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중개할 ‘巫師’가 필요했고, 병이 나면 무사를 찾아가고 무사에게 처방을 구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생겨났다. 앞에서 언급한 祝由術, 砭石, 針

는, 치료하디의 뜻이다. 周禮주왈, 병이 치료되어 멈추는 것이 療이다。」

160) 沈光海(1988:1) <先秦의 「樂」>《湖州師範學院學報》p.65-66. 《周禮·大司樂》「先秦所謂의 「樂」의 개념還要大得多, 并非指樂器或音樂而言, 乃當包含音樂, 詩歌, 舞蹈三者. 樂의 用途其一爲祭祀, 如《周禮·大司樂》:『乃分樂而序之, 以祭, 以享, 以祀.』」

161) (東漢)許慎《說文解字》卷六編上 五十四 臺北:藝文印書館印行 p.267.

法, 灸法, 藥物 등의 치료 방법이다. 이 방법을 심도있게 서술하고자 문자적 자료와 민속학적 자료와 고문헌을 참고하여 ‘고대 중국 문자에서 본 중국인의 의사와 의료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고대 중국인의 의사는 주술과 치료를 겸하였고, 축유술을 할 때는 ‘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비롯된 병’으로 巫師가 ‘기도와 춤을 추고 강신을 하여 결과를 점사를 통해 기록하고 처방을 하는 祝의 방법’과 ‘위협과 공포를 조장하여 말로 저주를 퍼부어 병자의 몸에 있는 병마를 퇴치하는 呪의 방법’으로 ‘芻狗’와 ‘犧牲’을 받쳐 병자의 몸을 대신하였다. 이 두 방법으로 정신적인 치료가 가능했다.

상대 중기 이후 갑골복사에 축유술 외에 巫師가 ‘砭石’을 이용하여 몸에 드러난 ‘농염을 치료’하고, ‘몸의 혈맥을 찾아 급소에 찔러 막힌 혈을 뚫어 병을 치료’하였다. 이때 사용했던 치료법이 ‘砭石’과 ‘針法’이었다. 그 후 ‘灸法’이 개발되어 ‘쑥’에 불의 근원인 ‘태양의 불을 붙여 몸의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고 그 쑥을 ‘환부에 붙여 땀을 떠서 환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병을 치료’하였다. 이 치료법은 제사를 지내면서 ‘巫醫’가 진행하였다. 그 외 ‘樂’자를 통해 成童禮를 거행하면서 이마에 문신을 새겨 ‘재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글자로 인해 ‘藥’자와 ‘癩’자의 의미가 ‘치료의 풀’, ‘치료’라는 의미가 탄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대 중국의 의료와 치료법은 巫術에서 탄생하였고, 그 의료를 시행한 자는 즉 중국 최초의 의사는 ‘巫師’였다. 그리고 치료법에 쓰인 풀이나 도구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도구로 이후 치료법에 접목되었고, 이러한 치료법이 오늘날 중국 전통 의학을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秦)孔鮒, 王謨輯〈孔叢者〉,《增訂漢魏叢書》(1988) 臺北 大化書局
- (西漢)孔安國傳, (唐)孔穎達疏〈尚書正義〉,《十三經注疏》1重刻宋板注疏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 (東漢)鄭玄注, (唐)賈公彥疏〈周禮注疏〉,《十三經注疏》3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 段玉裁注(東漢)《說文解字》臺北 藝文印書館印行
- 王充(東漢)〈論衡·解除編〉,《叢書集成初編》(1985) 北京 中華書局
- (魏)張揖撰, (清)王念孫疏證《廣雅疏證》 臺北: 廣文書局
- (魏)王弼(晉)韓康伯注(唐)孔穎達疏〈周禮注疏〉,《十三經注疏》1 臺北 藝文印書館印
- (晉)郭璞《山海經校注》(1981) 臺北 洪氏出版社
- (晉)郭璞注(宋)邢昺疏〈爾雅注疏〉,《十三經注疏》8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 (唐)孫思邈〈千金翼方·禁經下·禁金瘡第十二〉,《中國基本古籍庫》(200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據元大德梅溪書院本制作, 合肥 黃山書社出版發行
- (元)戴侗〈六書故〉,《中國基本考籍庫》(200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合肥市: 黃山書社出版發行
- (明)李時珍〈本草綱目〉,《中國基本古籍庫》(2008)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據清文淵閣四庫全書本製作, 合肥 黃山書社出版發行
- (清)俞越〈郡經評議·孟子一〉,《清代學術筆記叢刊58》(2002), 北京 學苑出版社
- 魯實先(1973)《假借遯原》臺北: 文史哲出版社
- 李懷之(1997)〈釋「殷」--兼談針刺療法在婦產臨床的最早運用〉《甘肅中醫學院學報》
- 楊樹達(1974)《積微居金文說甲文說》合訂本 臺北 大同書局
- 馬叙倫(1975)《說文解字六書疏證》五, 臺北 鼎文書局
- 郭沫若(1977)《甲骨文合集》第六冊, 北京 中華書局
- 于省吾(1980)《甲骨文字釋林》(全) 臺北 臺灣大通書局印行
- 郭沫若(1981)《甲骨文合集》北京 中華書局
- 郭沫若(1983)《甲骨文合集》北京 中華書局

- 白川靜著, 范月嬌, 加地伸行合譯(1983)《中國文化史》臺北 文津出版社
- 學勤, 齊文心, 艾蘭(1985)《英国所藏甲骨集》上編 (Oracle Bone Collection in Great Britain)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倫敦大學亞非學院編輯 中華書局
- 胡厚宣(1984)〈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中原文物》
- 林尹·高明主編(1985)《中文大辭典》臺北 中國文化大學印行
- 胡樸安(1988)《中國文字學史》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發行
- 沈光海(1988)〈先秦的“樂”〉《湖州師範學院學報》
- 陳奇猷校釋(1989)《呂氏春秋校釋》(上) 臺北 華正書局
- 宋兆麟(1989)《巫與巫術》成都 四川人民出版社
- 郭慶繁(1989)《莊子集釋》臺北 華正書局
- 洪元植 驛(1990)《黃帝內經素問解釋》서울 古文社
- 陳邦賢(1991)《中國醫學史》上海 上海書店
- 商代婦好鳥首玉笄,李經緯主編(1992)《中國古代醫史圖案》北京 人民衛生出版社
- 陳美東, 杜石然, 金秋鵬, 范楚玉(1992)《簡明中國科學技術史話》臺北 明文書局
- 袁珂(1993)《中國神話通論》巴蜀書社出版發行, 四川省新華書店
- 徐中舒(1993)《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 胡厚宣(1984)〈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中原文物》
- 許進雄(1995)《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臺北 商務印書館
- 余承林(1995)〈古代的醫學與衛生文化〉,《貴州教育學院學報》
- 楊家駱(1997)《新校本史記三家注並附編二種》四, 臺北 鼎文書局印行
- 高亨編著(1997)《古字通假會典》山東 齊魯書社
- 李懷之(1997)〈釋「殷」--兼談針刺療法在婦產臨床的最早運用〉,《甘肅中醫學院學報》
- 劉師培(1998)《劉師培學術論著》浙江省 浙江人民出版社,
- 嚴健民(1999)《中國醫學起源新論》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編纂(2000)《古文字詁林》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周清泉(2003)《文字考古》成都 四川人民出版社
- 趙容俊(2003)《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臺北 文津出版有限公司
- 李建民(2005)《生命史學-從醫療看中國歷史》臺北 三民書國股份有限公司
- 劉孝聖(2008)《醫療與身體--以先秦兩漢出土文獻為中心》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

研究所碩士論文

何由,邱鴻鐘(2008)〈祝由的內涵實質及作用〉,《醫學與哲學》(人文社會醫學版)

吳其昌(2008)《殷墟書契解詁》湖北 武漢大學出版社

張銘(2009)〈從巫,舞,雩解說遠古祭祀活動中的舞蹈〉,《新疆藝術學院報》

魯實先講授·王永誠編(2009)《甲骨文考釋》臺北 里仁書局

曹錦炎·沈建華《甲骨文校釋總集》上海 上海辭書出版社

〈黃帝素問靈樞經卷之十一·黃帝內經靈樞·官能第七十三〉 한의학교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184/volume/11>

〈考古发现的郁李仁〉 时间:2023-03-02 来源:中国中医药报8版作者:吴文博

<http://www.cntcm.com.cn/news.html?aid=217789> 2023.04.01. 15:00 검색

도표1 砭石:石质,内蒙古呼和浩特大窑村出土。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도표2 砭石:石器时代。70年代初出土于河南浙川下王岗仰韶文化遗址。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2023.03.30.15:00

도표3 砭石:现藏于廣州中醫藥大學醫史博物館。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2023.03.30.15:10

도표4 砭镰:商代。1973年河北藁城台西村第14号墓出土。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2023.03.30.15:20

도표5 商周玉石针 现藏于廣州中醫藥大學醫史博物館。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2023.3.30.15:00 검색

도표6 商代妇好墓玉笄 〈古代女人打扮起来有多用心?商代「妇好墓」竟然有近千件首饰〉

<https://baijiahao.baidu.com/s?id=1644547587431307035&wfr=spider&for=pc>2023.3.30.17:30 검색

도표8 西周青銅針,陕西扶风齐家村出土。2023.03.31. 14:30 검색

[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623/02/15585030_665687620.shtml)

鞞鼓

<https://baike.baidu.com/item/%E9%9E%9E%E9%BC%93/3553122?fr=aladdin>2023.04.01. 검색

## Abstract

### Exploring Chinese Physicians and Medical Technology in Ancient Chinese characters

Seoh, Jae Sun

This study examined the subjects and medical methods of medical treatment at the time by referring to the ancient literature related to ancient Chinese doctors and medical care in the inscriptions on bones or tortoise shells of the Shang Dynasty, Epigraphy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Shuowen Jiezi》 of the Eastern Han Dynasty.

The medical subjects of primitive ancient China that appear in oracle bone inscriptions and 《Shuowen Jiezi》 are shamans.

At that time, the shamans were people in charge of politics, culture, sorcery, and rain calling ceremonies. They were individuals with considerable spirituality, status, and cultural literacy.

The ancient medical techniques that emerged from the text included the witched-doctors treating diseases by prayers, stone needles used in acupuncture, massage, moxibustion therapy, and medication to treat patients.

In oracle bone inscriptions, the characters used to represent the witched-doctors treating diseases by prayers are "祝" and "兌", while in 《Shuowen Jiezi》, the characters used to represent witched-doctors treating diseases by prayers are "禦" and "呪". The character "砭" represents the "stone needle treatment method". The characters used to represent acupuncture therapy are "殷", "灸", "鍼", and "刺". The characters for massage therapy is "尉". The characters used to represent moxibustion are "灸", "灼", and "艾". The words for drug therapy are "毒", "藥", "樂", and "藥".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ve texts and ancient literature, we will examine the traces of various treatments and pharmacological methods used by primitive Chinese ancient people.

**Key words** : Ancient Chinese characters, Oracle bone script, 《Shuowenjiezi》, Ancient Chinese Medical History, Cultural history

투 고 일 : 2023. 4. 10. / 심 사 일 : 2023. 4. 15.~ 2023. 5. 15. / 게재확정일 : 2023. 5. 20.